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은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전문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Library 2.0 적용에 관한 연구

2011年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李佑範

전문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Library 2.0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doption of Library 2.0 for Improving

Information Service in College Library

2010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大學院

文獻情報學科

文獻情報學專攻

張 銀 熙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李佑範

전문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Library 2.0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doption of Library 2.0 for Improving
Information Service in College Library

위 論文을 文獻情報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0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大學院

文獻情報學科

文獻情報學專攻

張 銀 熙

張銀熙의 文獻情報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10年 12月 日

審查委員長 _____ 印

審查委員 _____ 印

審查委員 _____ 印

목 차

제 1 장 서 론	1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2 연구의 방법 및 한계	3
1.3 선행연구	4
제 2 장 이론적 배경	12
2.1 국내 전문대학도서관 학술자원 및 정보서비스 현황	12
2.2 Library 2.0 기반 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 사례	16
2.2.1 학술정보자원의 확충	17
2.2.2 정보서비스 공유 및 홍보	20
2.2.3 정보검색 지원	29
2.2.4 정보서비스 기능 강화	33
2.3 전문대학도서관의 Library 2.0 서비스 현황	36
제 3 장 Library 2.0에 대한 인식 및 적용 분석	40
3.1 실증연구의 설계	40
3.2 설문응답자 분석	43
3.2.1 표본의 특성	43
3.2.2 Library 2.0 서비스 인식	45
3.2.3 Library 2.0 서비스 적용	47
3.2.4 Library 2.0 서비스 활성화	52
3.2.5 변인 간 교차분석	57
3.2.6 Library 2.0 서비스에 대한 사서 의견 분석	62

3.3 종합적 고찰	69
제 4 장 전문대학도서관 LIBRARY 2.0 적용 방안	73
제 5 장 결론	79
【참고문헌】	82
【부 록】	86
ABSTRACT	91



【 표 목 차 】

<표 1> 전문대학도서관과 4년제 대학도서관의 비교	12
<표 2> 전문대학도서관의 Library 2.0 서비스 도입	37
<표 3> 설문대상 전문대학도서관	41
<표 4> 설문지 구성내용	42
<표 5>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44
<표 6> Libray 2.0 서비스 인지	45
<표 7> Library 2.0 서비스 세부 기능 이용 경험	46
<표 8> Library 2.0 서비스 도서관 도입	47
<표 9> Library 2.0 서비스 도입 기능	48
<표 10> Library 2.0 서비스 도입 동기	49
<표 11> Library 2.0 서비스 추가 희망 기능	50
<표 12> Library 2.0 서비스 미도입 이유	51
<표 13> Library 2.0 서비스 도입 희망 여부	52
<표 14> Library 2.0 서비스 적용 시 활용도	54
<표 15> Library 2.0 서비스 도입 우선순위	55
<표 16> Library 2.0 서비스 활성화 방안	57
<표 17> 대학 소재지 및 학생 수에 따른 Library 2.0 서비스 이용 경험 비교	58
<표 18> 대학 소재지 및 학생 수에 따른 Library 2.0 서비스 교육 경험 비교	59
<표 19> 대학 소재지 및 학생 수에 따른 Library 2.0 서비스 도서관 도입 비교	60
<표 20> Library 2.0 서비스 이용 경험에 따른 도서관 도입 비교	61
<표 21> Library 2.0 서비스 교육 경험에 따른 도서관 도입 비교	61
<표 22> 사서 면담 질문 내용	63
<표 23> 사서 면담 답변 내용	68

【 그 림 목 차 】

<그림 1> 4년제 대학도서관과 전문대학도서관의 주요 지표 비교	13
<그림 2> 성균관대학교 학술정보관의 Open API 서비스	19
<그림 3> 포항공과대학교 청암학술정보관의 RSS 서비스	22
<그림 4> 중앙대학교 도서관의 블로그 서비스	25
<그림 5>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의 트랙백 서비스	26
<그림 6> MIT대학 도서관의 소셜북마크 서비스	27
<그림 7> Georgia대학 도서관의 SNS 서비스	29
<그림 8> 펜실베이니아대학 도서관의 태그구름 서비스	31
<그림 9>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폭소노미 서비스	33
<그림 10> 하버드대학 도서관의 툴바 서비스	34
<그림 11> 명지대학교 도서관의 위젯 서비스	36



국 문 초 록

도서관은 정보 유통의 중심기관으로 이용자에게 각광받고 있으나 최근 들어 포털 사이트 등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Web 2.0 서비스는 도서관에 커다란 도전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학도서관에서는 Web 2.0 서비스의 개념을 도서관에 맞게 응용한 Library 2.0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전문대학도서관은 4년제 대학에 비해 예산, 인적자원, 장서 등이 부족하여, 다양한 학술정보서비스를 실시하기 힘들다. 그런데 Library 2.0 서비스는 관련 기술적 요소를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구현할 수 있는 open source 환경으로 전문대학도서관의 부족한 학술정보자원을 확충하고, 이용자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학술정보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를 활성화 할 수 있는 Library 2.0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전문대학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설문지와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설문지와 심층면담 내용은 Library 2.0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적용 및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다.

연구수행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Library 2.0 서비스의 주요 도입 동기는 ‘다른 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활용’이며, 주요 미도입 동기는 ‘예산과 인력부족’이다. 활용도는 ‘Open API’, ‘RSS’, ‘블로그’, ‘SNS’순이며, 주요 활성화 방안은 ‘이용자 홍보’, ‘사서에게 교육과 지원 필요’ 등이다. 둘째, 대학 소재지에 따른 분석에서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이용 경험이 많고, 도서관 도입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심층면담 분석결과는 Library 2.0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응용서비스를 개발하고, 설계와 구축과정에서 사서의 주도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바탕 위에 사서가 직접 이 서비스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설문 조사와 심층면담의 결과 분석을 토대로 하여 전문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Library 2.0 적용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Library 2.0 세부 기능 중 활용도가 가장 높은 Open API 서비스의 우선 적용이다. 다양한 정보서비스 실시의 전제조건은 풍부한 소장자료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대학도서관의 부족한 학술정보자원을 확충할 수 있는 Open API 서비스 실시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서를 대상으로 하는 Library 2.0 서비스의 교육기회 확대이다.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 전문대학도서관 사서들의 Library 2.0 교육 경험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KERIS와 한국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등의 관련 교육기관에서는 이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Library 2.0 서비스의 응용개발이다. 이용자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도서관 정보서비스와 연계한 도서관만이 제공할 수 있는 응용서비스의 개발이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이용자교육과 홍보 강화이다. 이용자교육과 홍보는 사서가 직접 능동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 서비스의 설계와 구축 과정에 사서의 주도적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SNS에 대한 연구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설문 조사와 심층 면담의 결과 전문대학도서관 사서들은 SNS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높으나 실제 경험과 활용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SNS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Library 2.0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학도서관 간의 긴밀한 협력 및 기술공유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상호협력과 기술공유는 전문대학도서관뿐 아니라 4년제 대학도서관을 포함한 전체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도서관은 정보 유통의 중심적인 기관이다. 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하고 발전하여 온 학술정보와 정보서비스는 인터넷이 보편화되어 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용자에게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포털 사이트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Web 2.0 서비스는 도서관에 커다란 도전이 되고 있다. Web 2.0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스스로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를 공유하도록 하며 타 기관 사이트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대학도서관은 Web 2.0의 개념을 도서관에 맞도록 발전시켜 이용자 중심의 Library 2.0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이용자들의 참여와 만족을 이끌어내고 있다. 많은 대학도서관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네이버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Open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이용해 자판 검색서비스에 포함하고 있으며, 블로그(blog) 등을 통해 도서관의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이용자와 공유하고 있다. 이 외에도 RSS(Really Simple Syndication or Rich Site Summary)를 이용해 도서관의 최신 소식과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태그구름(tag cloud)을 이용해 검색어의 중요도나 인기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트랙백(track back)을 이용해 도서관과 이용자 사이의 정보소통을 활발하게 하고,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이용해 관심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Web 2.0 기술을 활용한 Library 2.0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대학 간의 경쟁 심화로 인해 대학도서관의 역할과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연도별 고교졸업자 수는 2010년 60여만 명에서 2020년 40여만 명으로 감소할 예정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05). 전문대학에서도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산학협력을 통해 기업체

의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과 함께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 운영을 하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대학의 현실 속에서 도서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문대학도서관은 학사학위 교육과정을 운영해도 될 정도의 양질의 정보자원을 확보하고 제공하여야 하며 정보서비스 역시 마찬가지이다. 기존 장서중심의 대학도서관 운영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인력, 장서 등이 현저하게 부족한 전문대학도서관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쉽게 극복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중심의 Library 2.0 서비스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기술적 요소는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open source 환경으로 구현되어 있어 예산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전문대학도서관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Library 2.0 서비스는 전문대학도서관의 부족한 학술정보자원을 확충하고 이용자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학술정보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따라서 전문대학도서관은 Library 2.0 서비스의 다양한 적용 방안을 도출하여 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Library 2.0 서비스를 통해 찾아오지 않는 이용자와의 접촉을 늘리고 이용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반영함과 동시에 도서관과 사서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에 Library 2.0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 Library 2.0에 대한 사서의 인식과 Library 2.0 서비스 기술의 도서관 적용에 대한 사서의 태도를 분석하여 전문대학도서관에 적합한 Library 2.0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전문대학도서관의 정보서비스를 활성화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1.2 연구의 방법 및 한계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한 이론적 접근방법과 설문지와 심층면담을 통한 실증적 접근방법을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한 이론적 접근방법에서는 먼저 Library 2.0과 관련한 국내외 문헌에 나타나 있는 관련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연구흐름을 파악하였고, 전문대학도서관의 학술자원과 정보서비스 현황, Web 2.0 기술을 활용한 Library 2.0의 개념, Library 2.0을 이용한 국내외 도서관 정보서비스 사례 및 전문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실증적 연구방법은 전문대학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설문지와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Library 2.0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적용 및 활성화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도서관 중 학생 수가 4,000명 이상인 50개 도서관의 사서를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수행하였고, 실제 Library 2.0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도서관 사서 3명을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Library 2.0 관련 기술 중 실제 활용되고 있는 세부 서비스 Open API, RSS, 블로그, 태그구름, 트랙백, 폭소노미, 툴바, 소셜북마크, 위젯, SNS 등 10개를 선정하여 진행되었다. 이에 이 외의 서비스에 대한 분석은 제외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학생 수 4,000명 이상의 전문대학도서관 사서만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함으로써, 전문대학도서관 전체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보다 폭넓고 다양한 후속연구를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이며, 실제 서비스 대상자인 이용자들의 요구와 인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3 선행연구

Library 2.0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활발하게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2005년 Casey의 첫 언급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박미성 2008). Web 2.0으로부터 파생된 Library 2.0이 이용자들을 도서관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할 진화된 서비스로 보고 Library 2.0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적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Library 2.0 서비스 관련 연구는 이 서비스의 도서관 적용 및 활용 방안, 이용자 인식 및 요구사항, 세부적인 서비스 기능(RSS, Open API, 블로그, 폭소노미, 태그 등)에 관한 분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Library 2.0 서비스의 도서관 적용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용봉(2007)은 학술도서관 웹사이트의 구축 방안과 학술도서관 디지털 정보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Web 2.0 기술을 활용한 최신의 Library 2.0 관련 기술의 적용분야와 서비스 사례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학술도서관이 추구하여야 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중에서 웹을 통한 강의 및 연구활동 지원서비스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민간 포탈 사이트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방안으로 학술도서관 웹사이트를 통한 강의 및 연구활동 지원서비스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조재인(2007)은 Library 2.0 시대를 맞이한 도서관 영역에서 보여지고 있는 롱테일 현상을 정리하였다. 웹 비즈니스 영역에서 제시된 롱테일 전략을 도서관에 응용하여 제안하고자 Library 2.0 서비스를 살펴보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도서관 롱테일의 실천 방안으로 도서관 정보자원 공유, 고객참여형 서비스 개발, 다양한 채널과 방식으로의 자원접근, 다양한 버전의 유관 자료들의 브라우징 제공, 다양한 방식의 정보 입수, 가능한 많은 정보 제공 등의 방안을 실천 전략과 함께 제시하였다.

박미성(2008)은 Web 2.0 기술의 출현으로 도서관 이용자들이 이미 웹상

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경험하고 있고 이러한 경험들을 도서관 정보시스템에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 Web 2.0 기술이 적용된 대표 사이트들과 국내외 도서관 사이트를 분석하여 Web 2.0 기술 중 활용도가 높은 기술들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도서관 정보시스템이 이용자 중심의 시스템으로 발전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RSS, Open API, 소셜북마크, 팟캐스트 기술 등을 활용하여 목록과 검색 영역에서 구현할 만한 여덟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부가 서비스 영역에서 활용할 만한 네 가지 방안과 함께 Web 2.0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 일곱 가지에 대해서도 제시하였다.

둘째, 이용자 인식 및 요구사항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지연(2007)은 Library 2.0의 개념에 기반을 두어 이용자의 정보이용 행태와 정보요구를 수용한 도서관 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고, 다양한 Web 2.0 기술을 적용한 RISS(Research Information Service System)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국내외 도서관 서비스에 Library 2.0을 적용한 사례를 파악하고, Web 2.0 기술과 서비스 도입에 대한 RISS 이용자의 인식 및 요구사항을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Library 2.0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이용자의 참여, 이용자에 의한 콘텐츠 확대, 이용자 개개인을 위한 서비스에 초점을 두어 Library 2.0기반 대학서비스 모형을 개발하였다. 또한 Web 2.0 기술을 RISS 서비스에 적용하여 이용자 편의를 향상시키는 방안과 검색포털, 이용자 개인의 블로그, 인터넷 서점 등과의 연계를 통해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 Library 2.0의 개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웹 환경에서 이용자가 도서관 및 학술정보서비스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핵심 가치를 제공하는 콘텐츠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지연, 민지연(2008)은 Library 2.0을 적용한 도서관 및 학술정보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학술정보서비스 이용자들의 Library 2.0과 관련하여 Web 2.0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이용 경험을 파악하고, Library 2.0 개념을 적용한 정보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이용자들은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Web 2.0 기술을 적용한 Library 2.0서비스보다 관심분야의 최신 정보 수신, 정보전문가에 의한 콘텐츠 및 서비스, 구글

스칼라와 같은 논문 인용정보 제공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정보서비스가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Library 2.0의 개념을 적용하고 발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의 관심사와 정보요구에 따라 정보를 조직하는 서비스 제공, 관심분야의 최신정보를 자동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 개발, 전문가 제공 서비스를 통해 도서관 및 학술정보서비스의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김기숙(2008)은 대학도서관에서 실시하는 Web 2.0 기술을 적용한 Library 2.0의 이용자참여형서비스의 현황 파악 및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Library 2.0개념을 도입한 국내 대학도서관 3곳과 국외 3개 학술정보사이트의 이용자참여형서비스 제공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이용자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하여 대학도서관의 Library 2.0 이용자참여형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용자참여형서비스의 편리한 인터페이스 제공, 서평사서 및 정보제공자 확보, 통합검색 확장, 개인맞춤형의 홍보서비스 강화, 인센티브제도 도입 및 강의 및 수업과의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류진희(2008)는 대학도서관의 주이용 고객인 학생들의 요구분석을 통해 Library 2.0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 구축방안을 모색하여 Library 2.0 이념에 기반한 도서관의 공간 활용과 서비스 모델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OpenURL, OPAC의 Deep-Link, LibraryLookup 서비스와 같은 기술들이 다양한 채널로 도서관에 접근되도록 서비스할 수 있어야 하고, FRBR 브라우징, xISBN 서비스와 같은 기술들로 다양한 유관 자료들을 브라우징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위키, 블로그, 추천리뷰, 이용자 태그, 플리커, 매쉬업, 라이브러리 룩업 같은 Library 2.0서비스를 통해 고객 참여형 서비스를 개발하며, 멀티 미디어 전자교육매체를 제작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개인 및 그룹연구 환경에서 도서관은 이용자가 개인별 그룹별로 연구와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구현하고 인쇄자료와 전자정보원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넷째, 이용자 스스로 정보탐색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교육을 단계별, 수준별로 제공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부적인 서비스 기능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RSS와 관련한 연구로 진성화(2008)는 RSS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국내외 대학도서관의 사례분석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외 사례와 국내 현황을 조사하여 비교해 본 결과, 국내 대학도서관에서는 해외의 선진 사례들에 나타난 도서관에서 구독하는 데이터베이스나 전자저널 등에서 제공하는 RSS 서비스에 대한 안내나 외부 정보원에 대한 RSS 서비스 안내 등의 세분화된 RSS 서비스는 볼 수 없었으며, 다만 웹 트렌드나 정보통신 기술의 흐름에 따라 RSS 서비스를 도입하여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대학도서관의 RSS 서비스에 대한 사서와 이용자들의 인식이 낮았으며 RSS 서비스가 극히 단순한 부분에 그치고 있었다. 앞으로 대학도서관에서는 RSS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이용자들의 연구와 학습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Open API와 관련한 연구로 구중억, 이응봉(2009)은 온라인목록의 Open API 기반 일반 검색시스템과 온라인목록의 Open API 기반 메타 검색시스템을 구축하고 두 실험시스템의 사용성을 비교 평가하여 온라인목록의 Open API 기반 메타 검색시스템의 유용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사용성은 전체적으로 온라인목록의 Open API 기반 일반 검색시스템보다 온라인목록의 Open API 기반 메타 검색시스템이 더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도서관들이 인터넷서점, 검색엔진, 웹포털 등에서 공개한 도서검색용 Open API를 통해 제공되는 풍부한 콘텐츠를 온라인목록에서 공유하고 활용하면 서지데이터의 확충, 주제 접근과 주제검색 능력의 확대, 메타 검색서비스의 확장, 소장도서의 이용 가능성 증대, 목록비용의 절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블로그와 관련한 연구로 강선미(2009)는 문헌연구와 심층면담 등을 통하여 1인 미디어로서의 블로그를 정보 흐름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그 유형을 재유형화한 다음 블로그의 유용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개인 편집 정보 위주인 블로그는 개인 정보의 생산과 공유를 위한 도구로 등장하였으나, 점차 개인 정보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정보까지 포괄하는 정보의 생산과 생산된 정보의 공유 및 전달을 위주로 하는 매체로 성장하고 있으며, 블로그

의 완전한 독자성, 정보의 신뢰성, 저작권, 윤리성, 다른 정보전달 매체간의 관계, 기술적 안정성, 사회관계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등의 문제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극복된다면 블로그는 개인 정보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정보까지 포괄하는 정보의 생산과 생산된 정보의 공유 및 전달을 위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소규모 개인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해 나가게 될 것이라 주장하였다.

폭소노미와 관련한 연구로 이성숙, 정서영(2009)은 폭소노미를 도입하여 Library 2.0을 구현하고 있는 대학도서관 폭소노미 태그의 일반적인 패턴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평균적으로 하나의 콘텐츠당 약 1.35개의 태그가 사용되었다. 태그의 전형적인 패턴은 사용개수가 증가할수록 사용빈도 수가 감소하는 역할을 따르며, 전체 79.51%의 태그는 콘텐츠의 주제를 표현하고 있고, 84.61%의 태그는 사회적 동기에 의한 태그이다. 도서관 폭소노미 태그의 집단지성 구현도는 20.83%로 조사되었다. 이용자는 평균 5.25개의 태그를 태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그와 관련된 연구로 박태연(2010)은 정보서비스에 태그를 도입한 국·내외 대학도서관 웹사이트와 이에 상응하는 대표적인 Web 2.0 상용 사이트를 선정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객체의 유형에 따라 도서, 이미지, 북마크로 구분하여 인기태그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보와 이용자 그룹의 특성을 반영한 적용을 해야 하며, 이용자의 참여 유도를 통하여 풍부한 태그 자료를 구축하고 서비스하는 데 활용됨으로써 대학도서관 웹사이트에서의 참여, 공유, 개방을 통한 집단 지성의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외에도 정종기(2010)는 미국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팟캐스트 프로그램을 조사·분석하여 국내 팟캐스트 서비스 적용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응봉(2010)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주요 대학도서관의 교과목 강의 및 연구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조사·평가하여 Library 2.0서비스를 적용한 학술정보서비스 모델 개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제안하였으며, 박미영, 승현우(2010)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공도서관에 적용한 Library 2.0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국외의 경우 초창기 Library 2.0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RSS, 블로그 등 개별 서비스들에 대한 연구와 도서관 서비스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Library 2.0 서비스 활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도서관에서의 Library 2.0 서비스와 그 이용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국외 연구는 다음과 같다.

Aharony(2009)는 정보에 중점을 둔 업무를 하는 사서들이 새로운 기술적 변화와 혁신에 친근한지 그리고 다른 Web 2.0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서들의 개인적인 특성(변화에 대한 저항, 인지적 평가, 업무상의 위치,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과 컴퓨터 전문지식, 동기, 중요도, Web 2.0 적용 능력이 Web 2.0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지에 조사하였다. 이스라엘 사서 168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조사한 결과 사서들의 개인적 특성과 컴퓨터 전문지식, 동기, 중요도, Web 2.0 적용 능력이 사서들의 Web 2.0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스라엘 사서들은 생존, 타당성 유지, 새로운 이용자 유도를 위해 그리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 좀 더 새로운 기술적 도구들을 숙지해야 하고 변화하고 있는 작업환경에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Holmberg 등(2009)은 이론적이고 실증적으로 Library 2.0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Library 2.0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와 전문가 29명에게 “Library 2.0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변하게 하였다. 개념의 근본이 되는 요소를 발견하기 위해 동시단어분석(co-word analysis)을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 Library 2.0 모델은 상호작용, 이용자, 참여, 도서관과 도서관서비스, 웹과 Web 2.0, 사회적 양상, 기술과 도구들의 7가지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이를 구성요소로 Library 2.0을 실증적으로 정의하면 사회적 웹 기술에 의해 촉진된 참여라는 새로운 문화로 나타난 도서관과 이용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변화라고 하였다.

Xu, Ouyang과 Chu(2009)는 대학도서관에 Web 2.0 기능들이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뉴욕주에 있는 81개 대학도서관 웹사이트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42%인 38개 도서관에서 1개 이상의 Web 2.0 기

능들을 채택하여 도서관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었으며 개개의 도서관에서 구현하고 있는 Web 2.0 기능들은 아주 다양하였다. 조사 결과와 관련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대학도서관 2.0의 개념적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그 3가지 구성 요소로 Librarian 2.0, User 2.0, Information 2.0을 도출하였으며, 사용의 역할과 자질, 그룹별 이용자의 특징, 정보의 조직과 제공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Zheng과 Wang(2009)은 Library 2.0 사상을 실현하는데 있어 맹목과 성급함은 피해야 하며 Library 2.0은 도서관 서비스의 이용자가 중심이 된 변화로 성공적인 Library 2.0을 향한 첫 번째 단계는 Library 2.0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 조사라고 하였다. Library 2.0 실현의 목적은 이용자 요구의 평가와 분석을 기본으로 형성될 수 있으며 실제 Library 2.0 프로그램을 경영 사상, 서비스 패턴, 기술적 지원, 컨텐츠 개발의 4가지 단계로 제시하였다. Library 2.0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은 기술적 수준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Library 2.0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평가와 이용자 조사를 통해 시작되고 향상되어져야한다고 주장하였다.

Kim과 Abbas(2010)는 지식경영 측면에서 대학도서관과 이용자에 의해 적용되고 있는 Library 2.0 기능을 조사하기 위해 230개의 대학도서관 웹사이트와 이용자 184명을 대상으로 실제 적용되고 적용하고 있는 Library 2.0 기능을 조사 분석하였다. 대학도서관에는 RSS와 블로그가 널리 적용되고 있는 반면 이용자들은 북마크 기능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도서관에서 시작되는(library-initiated) 기능과 이용자에게서 시작되는(user-initiated) 기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library-initiated 기능인 RSS와 Podcast는 도서관 정보제공을 위해 널리 적용되고 있었지만 실제 이용자들에 의해 활용되는 비율은 낮았다. 도서관에서는 이러한 갭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하며 이용자들이 제공받고 싶어 하는 기능이 무엇인지 알아야한다고 주장하였다.

Tripathi와 Kumar(2010)는 호주, 영국, 미국의 주요 대학도서관 277개의 웹사이트에서 도서관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적용하고 있는 Web 2.0 도구들을 조사한 결과 RSS, IM, 블로그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었다. 신중한

Web 2.0 도구의 사용은 활발한 지식 허브로의 도서관 변화를 이끌 수 있으며, 도서관 전문가들은 Web 2.0 도구를 신세대 이용자들의 정보 요구에 대응하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전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Library 2.0과 관련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4년 제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 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전문대학도서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어 이와 관련한 연구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그리고 전문대학도서관의 Library 2.0 서비스에 관한 연구는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와 관련한 도서관 적용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2.1 국내 전문대학도서관 학술자원 및 정보서비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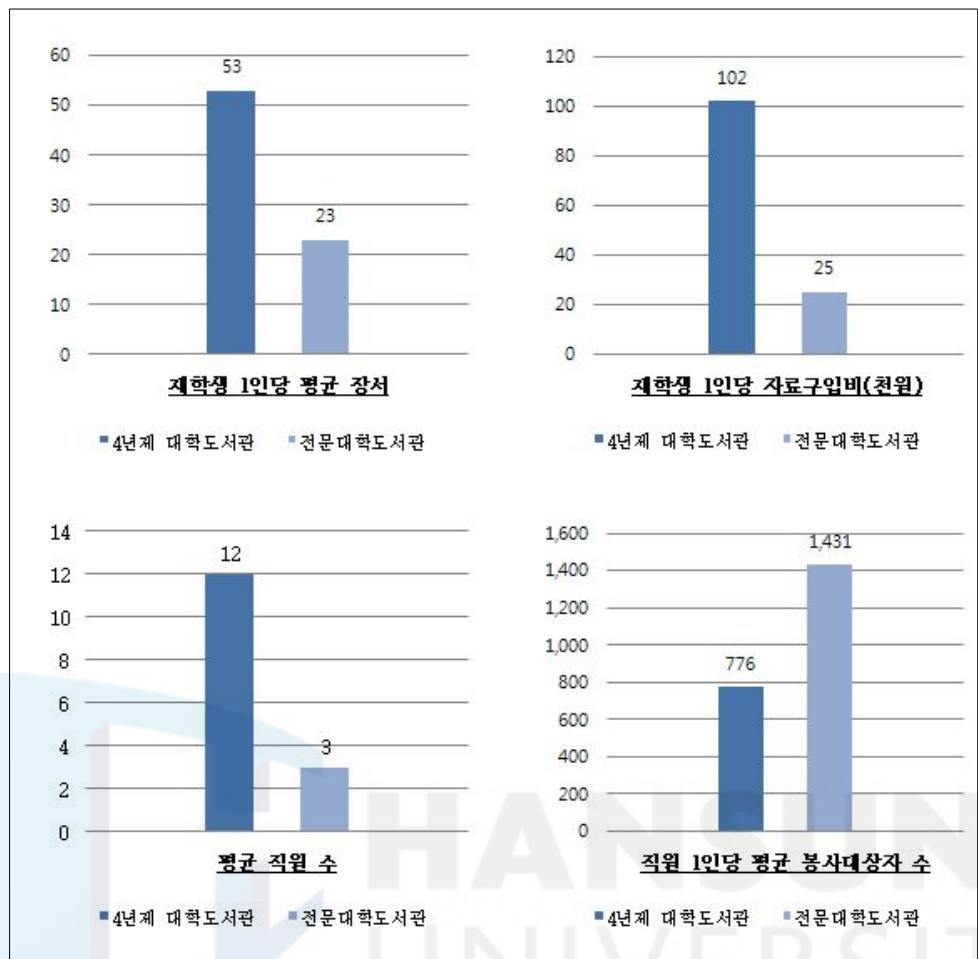
대학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보서비스는 학술정보의 구축과 열람서비스, 이용자교육 및 상담, 상호대차 및 원문복사 서비스, 질의응답 서비스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서비스는 대부분 4년제 대학도서관에서 주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전문대학도서관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학술정보 서비스를 시행하기가 힘겨운 상황이다. 이는 전문대학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학술정보와 인적자원 및 예산 등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이다.

대학도서관 통계분석 자료집에 나타난 통계를 근거로 4년제 대학도서관과 전문대학도서관의 소장자료, 시설 및 설비, 인적자원, 예산, 도서관이용, 전자서비스 등을 비교해 보면 <표 1>과 같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9).

<표 1> 전문대학도서관과 4년제 대학도서관의 비교

구분	4년제 대학도서관	전문대학도서관	4년제 대비 비율(%)
도서관수	264개	143개	
소장 자료	평균 장서량	407,000권	78,000권 19
	재학생 1인당 평균 장서	53권	23권 43
	연평균 장서증가 책 수	18,000권	3,000권 17
시설 및 설비	재학생 1인당 도서관 연면적	1.08m ²	0.75m ² 75
	열람석당 재학생 수	5.3명	7.0명 132
인적 자원	평균 직원 수	12명	3명 25
	직원 1인당 평균 봉사대상자 수	776명	1,431명 184
예산	재학생 1인당 평균 자료구입비	102,000원	25,000원 25
도서관 이용	연평균 도서관 방문자 수	747,000명	91,000명 12
	재학생 1인당 평균 대출 책 수	11.3권	3.1권 27
전자 서비스	홈페이지 1일 평균 접속 수	2,285건	266건 12
	봉사대상 1인당 OPAC 검색 건수	80건	27건 34
	봉사대상 1인당 상용DB 검색 건수	72건	6건 8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9. 『2009 대학도서관 통계분석 자료집』.>



<그림 1> 4년제 대학도서관과 전문대학도서관의 주요 지표 비교

<그림 1>은 4년제 대학도서관과 전문대학도서관을 재학생 1인당 평균 장서, 재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평균 직원 수, 직원 1인당 평균 봉사대상자 수로 비교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장서의 수, 예산, 인력면에서 전문대학도서관이 4년제 대학도서관보다 열악한 환경임을 알 수 있다.

평균 장서량은 4년제 대학도서관이 407,000권, 전문대학도서관이 78,000권으로 전문대가 4년제 대비 19% 수준이다. 학생 수를 고려한 재학생 1인당 평균 장서량은 4년제 대학도서관이 53권, 전문대학도서관이 23권으로 전문대가 4년제 대비 43% 수준이다. 또한 연평균 장서 증가 책 수는 4년

제 대학도서관이 18,000권, 전문대학도서관이 3,000권으로 전문대가 4년제 대비 17% 수준으로 나타나 전문대학도서관이 4년제 대학도서관에 비해 학술정보자료의 부족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표는 전문대학도서관 이용자들이 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도서관을 통해 얻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는 학술정보자료를 보관하고 정보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이다. 재학생 1인당 도서관 연면적(m^2)은 4년제 대학도서관이 $1.08m^2$, 전문대학도서관이 $0.75m^2$ 로 전문대가 4년제 대비 75% 수준으로 나타났다. 열람석 당 재학생 수는 4년제 대학도서관이 5.3명, 전문대학도서관이 7명으로 전문대가 4년제에 비해 재학생 당 열람좌석 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는 4년제 대학과 대비하여 볼 때 다른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인적자원은 도서관의 정보서비스 수준을 결정할 수 있으며, 도서관의 기본적인 요소이다. 평균 직원 수는 4년제 대학도서관이 12명, 전문대학도서관이 3명으로 전문대가 4년제 대비 25% 수준이다. 직원 1인당 평균 봉사대상자 수는 4년제 대학도서관이 776명, 전문대학도서관이 1,431명으로 4년제 대학에 비해 전문대가 2배 정도의 봉사대상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는 4년제 대학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음에도 인적자원은 크게 부족해 도서관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학사회에 대한 이용자들의 기대와 요구는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전문대학도서관 역시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전문대학도서관 사서들은 이용자들의 수준 높은 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과중한 업무라는 이중 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다양한 학술정보서비스의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예산은 학술정보자료를 확충하고 정보서비스를 실시할 기반환경을 만들 수 있으며, 도서관의 기본 요소이다. 재학생 1인당 평균 자료구입비는 4년제 대학도서관이 102,000원, 전문대학도서관이 25,000원으로 전문대가 4년제 대비 25% 수준이다. 이는 전문대학도서관의 학술정보자료 부족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도서관 이용은 정보서비스의 결과를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이다. 연

평균 도서관 방문자 수는 4년제 대학도서관이 747,000명, 전문대학도서관이 91,000명으로 전문대가 4년제 대비 12% 수준이다. 재학생 1인당 평균 대출 책 수는 4년제 대학도서관이 11.3권, 전문대학도서관이 3.1권으로 전문대가 4년제 대비 27% 수준이다. 전문대학도서관의 도서관 이용은 전체적으로 4년제 대학과 비교해 저조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전자서비스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자료 이용에 대한 이용자들의 이용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도서관 정보 유통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도서관 홈페이지 1일 평균 접속 수는 4년제 대학도서관이 2,285회, 전문대학도서관이 266회로 전문대가 4년제 대비 12% 수준이다. 봉사대상 1인당 OPAC 검색 건수는 4년제 대학도서관이 80건, 전문대학도서관이 27건으로 전문대가 4년제 대비 34% 수준이다. 봉사대상 1인당 상용DB 검색 건수는 4년제 대학도서관이 72건, 전문대학도서관이 6건으로 전문대가 4년제 대비 8% 수준이다. 전문대학도서관의 전자서비스에 대한 이용은 전체적으로 4년제 대학과 비교해 미진하다. 특히, 4년제 대학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전문대학도서관의 OPAC 검색 건수가 높고 상용DB의 검색 건수가 낮은 것은 홈페이지 이용 목적이 단행본 위주의 자료 열람을 위해 자료를 검색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외에는 이용할만한 정보와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전문대학도서관의 예산 부족으로 상용DB를 다양하게 구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상용 DB의 검색 건수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통계에서 나타난 여러 평가지표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대학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학술정보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둘째, 학술정보를 이용자 요구에 맞도록 제대로 수집하고 체계화 시킬 인적자원과 시설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셋째, 전문대학도서관에 배정되는 예산으로 보아 향후에도 4년제 대학도서관과 전문대학도서관의 평가 지표 격차는 점차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문대학도서관에 대한 지원정책이 학자, 정부, 관련기관 등에서 논의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이와 같은 전문대학도서관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에 적합한 정보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비용과

인적자원으로 학술정보의 양을 확충하여 이용자 중심의 정보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Library 2.0 서비스의 개발과 활성화가 전문대학도서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2 Library 2.0 기반 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 사례

Library 2.0은 Web 2.0 기술과 철학을 도서관 정보서비스에서 구현한 것을 의미한다. Web 2.0은 웹이 탄생한 1989년 이후 15년간 단지 Web으로 불리던 기존의 웹과 구분하기 위해 붙여진 이름이다. Web 2.0이라는 용어는 2004년에 미국의 IT계 출판사인 O'Reilly사와 MediaLive International사가 개최한 컨퍼런스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2001년 닷컴 붕괴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아마존, 이베이, 구글 등의 인터넷 사이트 서비스에서 발견되는 차별적인 특징들을 다른 서비스들과 비교하는 맥락에서 사용하였다(O'Reilly, 2005). Web 2.0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지만, 참여, 공유, 개방이라는 3대 철학을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웹 환경 또는 비즈니스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웹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누구나 손쉽게 데이터를 생산하고, 인터넷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사용자 참여 중심의 환경으로 인터넷만 있으면 어느 곳에서도 데이터를 생성, 공유, 출판, 비즈니스가 가능한 사용자 주도의 열린 공간으로서의 동적인 웹인 것이다.

Web 2.0 기술에 기초한 Library 2.0의 개념은 2005년 9월 Michael Casey가 자신의 블로그인 “LibraryCrunch”에서 도서관의 온라인목록(OPAC)에 대해 Web 2.0의 응용에 관한 견해와 연구방향을 언급하면서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그는 Web 2.0의 특성과 기술을 도서관과 직접 연관시키고자 소개하면서 Library 2.0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이후 개념과 원칙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Library 2.0 기반 정보서비스는 다양한 형태로 이용자들과의 정보공유와 활용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러한 정보서비스는 Open API, RSS, 블로그, 태그구름, 트랙백, 위키,

SNS 등의 Web 2.0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최근 대학도서관에서는 이러한 Library 2.0 서비스를 적용하여 학술정보자원의 확충, 정보서비스 공유와 홍보, 정보검색 지원, 정보서비스 강화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Library 2.0 서비스는 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의 기능을 확장시키고 있다. 이 절에서는 Library 2.0 서비스의 기능을 중심으로 국내외 대학도서관의 서비스의 개념과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2.1 학술정보자원의 확충

전문대학도서관은 학술정보자원의 부족으로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실시하기 힘든 상황이다. 대학도서관의 정보서비스는 일정량 이상의 학술정보 자원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Library 2.0 서비스는 Open API 등의 활용이 있으며, 여러 대학에서 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1) Open API

Open API는 인터넷 환경에서 웹서비스 제공업체가 자신들의 데이터베이스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외부에 접근방법을 공개한 것을 의미한다.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나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든 인터페이스이다. 원래는 운영체제나 언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였으나 웹서비스에서는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지칭한다. 즉, API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대중에게 웹서비스 형태로 공개한 것을 Open API라고 하며, 특정 기능 또는 콘텐츠를 가진 서비스 업체가 자신들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외부에 접근 방법을 공개한 것을 의미한다. Open API를 활용하여 웹서비스 기관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매쉬업(mash-up)이라고 한다.

Open API를 활용하여 외부에 서비스 접근 방법을 공개한 기관은 한국 교육학술정보원(KERIS),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국가기록원 등

의 학술정보 중심 기관과 구글(Google), 아마존(Amazon), 이베이(Ebay), 플리커(Flickr), 네이버(Naver), 다음(Daum) 등의 상업적 회사가 있다. 이 중 국내 대학도서관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은 KERIS, 네이버 등에서 제공한 공개 서비스이다.

KERIS는 대학도서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학술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 기관은 전문대학도서관에서 필요로 하는 양질의 학술정보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Open API 활용의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KERIS에서는 2008년 9월부터 각 대학도서관에서 등록한 국내외 학술논문, 국내 석·박사 학위논문, 국내외 단행본 데이터베이스를 Open API를 활용하여 공개하였다. 이러한 학술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국내 석·박사 학위논문은 학술정보자원 중 질적 완성도가 높은 것으로 학위논문 생산기관이 아닌 전문대학도서관에 있어 매우 유용한 자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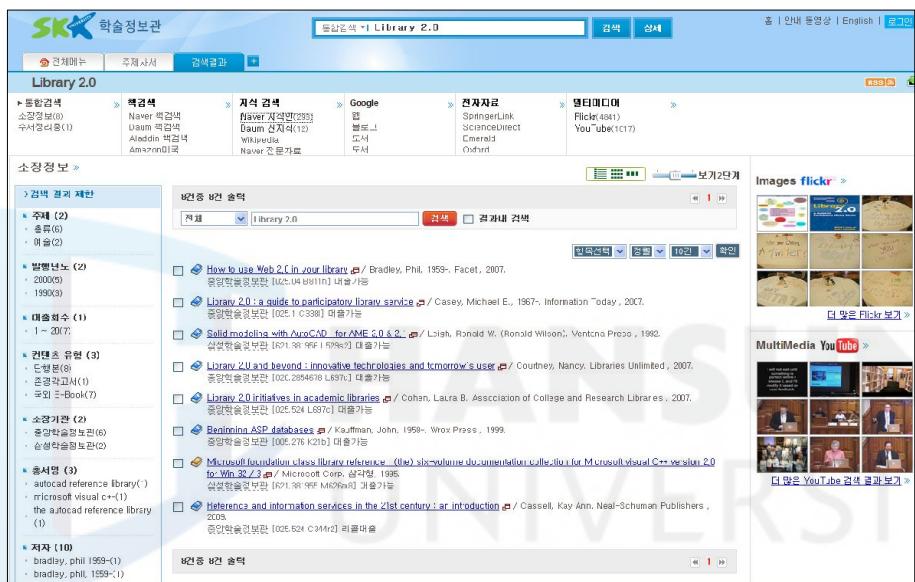
네이버는 국내 포털 사이트 중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지식인, 사전, 뉴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해 왔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도 지식인 서비스는 네이버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정진한 2010). 지식인은 질문과 답변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이를 사람들이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일상생활정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네이버에서는 일상생활정보에서 전문정보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인지도 확대를 위해 구축한 대부분의 정보를 Open API를 통해 공개하고 있어 전문대학도서관에서 일상생활정보와 관련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대학도서관에서는 Open API를 활용하여 학술정보와 일상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매쉬업 기술을 통해 통합검색을 구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성균관대학교 도서관과 고려대학교 도서관 등이 있다.

성균관대학교 학술정보관¹⁾의 검색 2.0 서비스는 기존의 자판 콘텐츠 외에 다양한 외부 오픈 소스들을 활용하여 하나의 키워드로 여러 형태(멀티

1) <http://lib.skku.edu/index.ax>

미디어, 이미지, 동영상 등)의 콘텐츠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레이아웃을 구성하였다. 또한 좌측의 facet 검색을 통해 다양한 검색 옵션을 부여하고 이용자들이 원하는 콘텐츠 범위들을 좁혀나가면서 최적의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약 50여 개의 외부 콘텐츠 소스들을 기본 설정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필요에 따라 외부 콘텐츠들을 추가적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콘텐츠를 화면으로 구성하여 포털 서비스나 제공 사이트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원하는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래의 <그림 2>는 성균관대학교 학술정보관의 Open API 서비스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성균관대학교 학술정보관의 Open API 서비스

고려대학교 도서관²⁾은 성균관대학교 학술정보관처럼 검색 첫 화면에서 모든 자료유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다. 검색 후 인터넷자료 메뉴로 들어가거나 초기 검색 시 인터넷자료로 한정해 놓고 검색을 하면 OPEN API 기술을 이용해 구현해 놓은 인터넷 자료의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용자들은 KERIS의 국내외학술지 논문, 국내학위논문

2) <http://library.korea.ac.kr/>

및 단행본, NDSL의 학술논문, 인터넷 서점 알라딘의 도서자료, 국내외 특허 관련 자료, 구글과 다음의 도서자료, 아마존의 도서자료, OCLC의 WorldCat 구축자료, 유튜브의 동영상 자료, 위키피디아 검색결과를 얻을 수 있다.

2.2.2 정보서비스 공유 및 홍보

대학도서관은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공유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 Library 2.0 서비스는 RSS, 블로그, 트랙백, 소셜북마크, SNS 등이 있다.

RSS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방문하지 않고도 도서관의 최근 소식과 정보를 받아볼 수 있어 신속한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블로그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공식적인 정보와는 차별화되게 사서들의 자유로운 글쓰기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제공이 가능하고, 이용자가 직접 글을 작성하거나 댓글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사서와 이용자, 이용자와 이용자 사이의 정보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 트랙백과 소셜북마크 및 SNS는 이용자 상호간의 정보 유통과 교류를 촉진시킬 수 있다. 트랙백은 도서관과 이용자의 정보소통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소셜북마크는 유용한 정보원을 공유할 수 있다. SNS는 이용자 간의 유대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도서관과 이용자 간의 소통을 활발하게 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증대시킬 수 있다.

1) RSS

RSS는 XML 기반의 정보배급 프로토콜로 최근 뉴스나 공지사항 등과 같이 빈번하게 갱신되는 정보를 손쉽게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자가 직접 웹 사이트에 방문하거나 로그인하지 않아도 RSS 리더를 통해 갱신된 정보를 즉각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맞춤형 정보배달 서비스이다.

기존의 HTML 형식에서 웹페이지에 도달하기 위해 HTTP라는 프로토

콜을 이용하였듯이 XML형식으로 구현된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 RSS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방식의 차이점으로 RSS에서는 링크된 사이트의 주소만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링크된 사이트에 표시되는 정보가 그대로 나타난다. 즉, 데이터를 인터넷 이용자에게 직접 배달해 주는 것이다. 링크된 사이트에서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되면 자신의 PC나 홈페이지에 있는 RSS 링크에 나타나는 정보도 자동적으로 업데이트된 정보가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이 RSS는 온라인 콘텐츠를 쉽게 배열해주는 HTML과 이를 손쉽게 전송해 주는 이메일의 장점을 하나로 묶은 기술이다. 쉽게 말해 지금까지 인터넷 이용자들은 각종 신문기사나 혹은 포털 사이트 정보 및 블로그의 기사를 읽고 싶으면 해당 사이트에 직접 방문하였다. 하지만 RSS는 신문 기사나 포털 사이트, 블로그의 기사 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전달해주므로 해당 사이트로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볼 수 있다. RSS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신하려면 RSS 리더기나 웹 기반 리더기를 이용하면 된다. 이러한 RSS기술은 블로그에서 업데이트 정보를 알려주는데 주로 사용되어 블로그를 확산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 Web 2.0 기술 중 활용도가 가장 높다(박미성 2008).

RSS 서비스는 업데이트가 자주 이루어지는 도서관 홈페이지 메뉴나 외부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카페 등 여러 웹사이트를 개인 취향에 따라 선택하고 등록하여 생성된 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제공한다. 즉, RSS 서비스를 통해 홈페이지 안에서의 개별 메뉴나 외부 웹사이트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생성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도서관에서는 RSS를 이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신착도서나 각종 공지사항 및 각종 이벤트 등을 알리는 서비스로 활용하고 이용자들은 RSS주소를 복사해서 자신의 RSS reader 프로그램에 붙여 넣어 관련된 정보들을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고 이용하거나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도서관 메뉴뿐 아니라 외부 웹사이트들을 등록하여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를 한 화면에서 이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라이브러리 2.0을 도입한 성균관대학교 학술정보관과 포항공과대학교 청암학술정보관 등 많은 대학도서관에서 RSS를 활용하여

도서관의 최신정보와 도서관 OPAC 검색결과 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포항공과대학교 청암학술정보관³⁾에서는 도서관 공지사항, 도서관 블로그 새 글, 도서관 제공 슬라이드, 추천 웹리소스, 신착도서 이미지, 분야별 신착자료, 과학 주제별 외부 RSS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대출 반납 관련 개인통보서도 RSS 서비스를 통해 받아볼 수 있다.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RSS주소를 RSS리더 프로그램(한RSS, Google reader, ZDNet, Netvibes, iGoogle)에 등록하면 업데이트 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매번 사이트에 방문할 필요 없이 쉽게 정보를 확인하고 이용이 가능하다. 아래의 <그림 3>은 포항공과대학교 청암학술정보관의 RSS 서비스를 나타낸 것이다.



번호	제 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
1	청암학술정보관 출입증 신청 안내 (POSCO/RIST)	2010-08-06	739	
2	RFID 장비 교체 관련 안내	2010-07-30	185	
3	American journal of mathematics 온라인 학회 구독 안내	2010-07-23	165	
4	Nature chemistry 신규 저널 Open 안내	2010-07-14	236	
5	전자저널 사용기준 공지	2005-07-11	12731	
6	방학 중 도서관 이용 안내	2010-07-19	532	
7	DVD 대출반납기 이용체한 (7/12 ~ 7/14)	2010-07-12	135	
8	참고문헌 관리툴 Endnote X4 Version 업데이트	2010-07-06	327	
9	이벤트 결과 발표: 70일 간의 독서 일주	2010-07-06	90	
10	청암학술정보관 출입증 교체발급 안내 (POSCO/RIST)	2010-07-01	1095	
11	1층 출입구 공사 안내 (7/1 ~ 7/6)	2010-07-01	174	
12	학위논문 제출 안내 (2010년 8월 대학원 졸업예정자)	2010-06-23	320	
13	무인책대(스마트)시스템 운영에 따른 이용 안내	2010-06-22	270	
14	JCR 2009 Update 안내	2010-06-22	225	
15	[이벤트] 나만의 머플방학 Reading List 만들기	2010-06-18	277	

<그림 3> 포항공과대학교 청암학술정보관의 RSS 서비스

성균관대학교 학술정보관⁴⁾은 SDI 서비스에서 E-mail 및 My Library 방식에 대한 강력한 대안으로 이용자 정보탐색 비용의 절감, 정보의 최신

3) <http://library.postech.ac.kr/htdocs/index.php>

4) <http://lib.skku.edu/bbs/Bbs.ax?bbsID=5>

성 유지, 이용자와 도서관간의 신속하고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통로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며 RSS서비스를 국내도서관 최초로 도입하였다. 공지사항, 건의사항, 서평, 검색 결과, 신착도서 안내 등의 정보를 RSS 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해당 정보를 손쉽고 편리하게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블로그

블로그는 컴퓨터의 웹(web)과 로그(log)의 합성어로 인터넷 이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생산·관리·유통·공유할 수 있는 통합게시판의 형태이다. 도서관 블로그는 기존 홈페이지의 일방적 정보전달과 이용자들의 관심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의 새소식과 활용정보를 블로그를 통해 제공하고 댓글이나 방명록을 통해 이용자와 교감할 수 있다.

블로그의 유형은 크게 가입형과 설치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가입형은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것과 티스토리와 같이 전문 블로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것이고. 설치형은 운영 서버에 직접 블로그 생성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텍스트큐브와 xPress Engine 등과 같은 종류이다.

가입형은 설치와 운영이 간단하고 다양한 레이아웃과 기능을 제공하지만 이용에 있어 확장성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 다양한 형태의 게시판 생성이나 설문조사 등과 같은 응용이 용이하지 못하다. 많은 대학도서관에서는 이러한 가입형 블로그를 많이 채택하고 있다.

설치형은 공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직접 설치해야 하는데 다양한 확장성과 기능 추가가 가능하고 직접 관리로 인해 블로그의 이전이나 백업이 유리하다. 그러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기술적 능력이 요구되어 일정 수준 이상의 전산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새소식은 서비스의 안내와 신규 제공 학술정보의 소개에 머물러 있었다. 형식적인 글 소개와 텍스트 위주의 형태로는 이용자의 관심을 끌기 부족했고,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 부족해 일방적인 전달에 그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

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하기 위해 도서관에서는 블로그를 만들어 담당 사서는 업무의 새로운 소식과 함께 유익한 활용정보를 자유롭게 블로그를 통해 제공하고, RSS를 통해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며 댓글이나 방명록을 통해 이용자와 교감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포항공과대학교 청암학술정보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등 다수의 대학도서관에서 블로그 운영을 통해 도서관의 업무활동, 최신정보, 웹사이트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포항공대 청암학술정보관⁵⁾에서는 2007년 4월 국내 도서관으로는 처음으로 도서관 블로그를 오픈하였다.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각종 단행본, 저널, 멀티미디어, 전자 자료에 관한 소개와 서비스의 내용 및 유용한 학술 정보 콘텐츠를 제공하고, RSS기능을 통해 손쉽게 구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다양한 Web 2.0기술을 매쉬업(MashUp)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Flickr를 적용한 신착도서 슬라이드쇼와 Snap shots을 이용한 링크 미리보기 기능에서부터 Redwing이라는 Open API를 활용하여 이용자가 도서관 직원과 채팅을 통하여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포항공대 청암학술정보관의 블로그는 하루 방문자 수가 400~500명에 이를 정도로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으며, 새로운 게시물이 자주 업데이트되고 이용자들의 코멘트(comment) 등록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도서관과 이용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증진시키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박희언 2008).

중앙대학교 도서관⁶⁾은 2009년 2월 블로그를 오픈하였다. 도서관 이용방법 안내 글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도서관 행사, 학술DB 안내, 도서관 추천 도서, 미디어실 예약을 위한 일정표 및 상영안내를 주로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중앙도서관 개관 기념품 신청을 받거나 도서관 행사에 대한 이용자 의견을 묻는 등의 형식으로 이용자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시에는 블로그를 통해 홈페이지 개편 진행 상황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등 주로 도서관 홍보와 도서관 이용 안내, 도서관과 이용자와

5) <http://postechlibrary.tistory.com/>

6) <http://caulib.tistory.com/>

의 소통의 공간으로 블로그를 활용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 4>는 중앙대학교 도서관의 블로그 서비스를 나타낸 것이다.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Central University Library's blog. At the top, there is a search bar with a 'SEARCH' button and an 'OK' button. To the right of the search bar are links for 'HOME', 'TAG', 'MEDIA LOG', 'LOCATION LOG', 'QUESTION', 'REPORT', and 'SUBSCRIBE'. Below these are counters for 'TOTAL 34,414', 'TODAY 57', and 'YESTERDAY 114'. The main content area has a title '전체'에 해당되는 글 103건' (103 posts matching '전체'). Below this is a list of posts with dates and titles, such as '2010/08/27 [미디어실] 9월 A/L을 일정' and '2010/07/30 [영화상영] Music Vacance'. To the right of the post list is a large image of the university's clock tower. Further down, there is a section for '미디어실' with a title '9월 A/L을 일정' and a weekly calendar table. The calendar shows various events and classes for the month of September. On the right side of the page, there are two sidebar sections: 'NOTICE' and 'CATALOGUE', each with a list of links.

<그림 4> 중앙대학교 도서관의 블로그 서비스

3) 트랙백

트랙백은 블로그에서 사용하는 주요 기능 중 하나로 역방향 링크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것이다. 누군가의 블로그를 읽고 그에 대한 의견을 자신의 블로그에 써 넣은 후 트랙백을 주고받으면 원래 글 아래 새로운 글로 가는 링크가 붙게 된다.

이러한 트랙백 서비스는 정보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매개체로서 특별히 도서관 블로그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는 블로그에서 이를 활용하여 도서관과 이용자 사이의 소통을 향상시키고 있다.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블로그⁷⁾에서 이용자가 새로운 글을 읽고 그에 대한 의견을 이용자 자신의 블로그에 써 넣은 후에 트랙백을 주고받으면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블로그의 글 아래 이용자가 써 놓은 글로 가는 링크가 붙게 된다. 이는 도서관의 유용한 정보를 이용자가 활용하면서 이용

7) <http://dgulibrary.tistory.com/>

자의 정보를 도서관도 함께 공유하는 형태이다. 아래의 <그림 5>는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블로그의 트랙백 서비스를 나타낸 것이다.

The screenshot shows a list of trackbacks from various sources. The first item is highlighted with a red border. A message box in the center says, "이 글은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을 보시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 Below the message are buttons for "등록된 다른 글 보기" and "위젯받기". At the bottom, there is a link to subscribe via RSS and a trackback address: "Trackback Address :: http://dgulibrary.tistory.com/trackback/16 [복사] [관련글 쓰기]".

내용	날짜
IWCU] 세계 각국들의 무료 공연장 강의를 만나보자! (0)	2009/04/16
IRIVER D5? U-Pass Card? 꼼꼼히 살펴...^^ (0)	2008/03/03
【참고정보원】 알마두면 유용한 정보원 (0)	2007/08/13
[toon] 도서관에서 (0)	2007/08/08
[CINII] 일본학술저널 인용색인정보 및 원문제공 (0)	2007/07/24
신문검색! 스크랩! (2)	2007/07/04

<그림 5>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의 트랙백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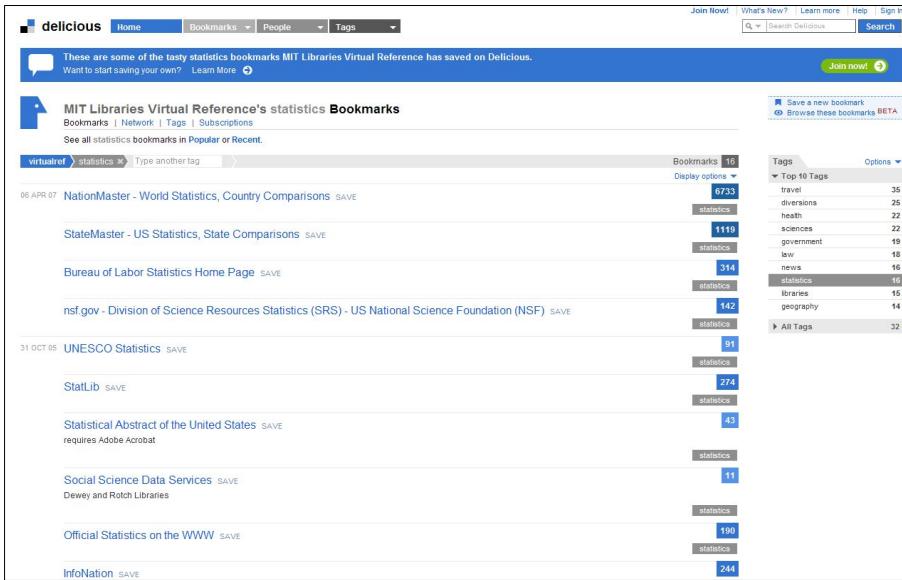
4) 소셜북마크

소셜북마크는 사용자가 북마크를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는 웹기반 시스템이다. 웹 서핑 시 북마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이트를 브라우저의 즐겨찾기 대신에 웹에 추가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 영역에 북마크할 수 있도록 하여 몇 명이 북마크를 추가했는지를 통해 해당 사이트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이트로 딜리셔스와 마가린이 있으며, 대학도서관에서는 MIT 도서관과 포항공대 청암학술정보관 등에서 활용하고 있다.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도서관⁸⁾에서는 Virtual Reference Collection으로 딜리셔스라는 소셜북마크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원하는 주제 분야 키워드를 클릭하면 관련된 북마크들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아래 <그림 6>은 MIT도서관

8) <http://www.delicious.com/virtualref>

의 소셜북마크 서비스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6> MIT대학 도서관의 소셜북마크 서비스

포항공과대학교 청암학술정보관은 목록 검색의 상세정보 페이지를 소셜북마크 사이트에 모아두면 자신만의 온라인 서재를 만들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Addthis.com의 툴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는 36개의 북마크 공유(소셜북마크) 사이트를 지원하고 있다. 개별 소셜북마크 사이트는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가입한 후 이용가능하다.

5) SNS

SNS는 1인 미디어, 1인 커뮤니티, 정보 공유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맥 관리’를 주목적으로 개설된 커뮤니티형 웹사이트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한 종류는 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 트위터, 싸이월드, 미투데이, 메신저 등이 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인터넷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원들(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을 이용해 인류의 집단 지성(사람들끼리 서로 협력을 통해 얻게 된 지식 또는 지적 능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개인들이 서로 연결되어 스스로 관심 분야의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조직을 만들고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의해 이루어진다.

도서관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적용한 이유는 쏟아지는 정보로 양질의 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도서관이 정보를 생산하는 주체가 되고, 도서관을 통해서 이용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인맥 형성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플랫폼 역할을 하기 위해서이다(김동재 2008). 이용자들은 관심 분야를 공유하면서 서로에 대한 공통 관심사를 확인하고 싶어 하고, 이는 결국 공통 관심사를 가진 이용자들이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된다. 이와 같은 관계 형성이 도서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많은 이용자들은 자연스레 직접 도서관을 찾거나 온라인 디지털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어 도서관 이용률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 흔들리는 도서관의 존립기반은 바로 서게 될 것이다.

해외에서는 Georgia대학 도서관처럼 소셜 네트워크를 도서관에 적용한 사례가 종종 보이는데, 현재 국내에서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가 도입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 학술정보관과 포항공과대학교 청암학술정보관 등 소수의 대학도서관에서만 이를 응용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Georgia대학 도서관⁹⁾은 도서관 공지사항, 조회서비스, 새로운 책에 관한 포스트, 다른 도서관과의 네트워킹, 고객서비스 등 도서관 제공 서비스와 이밖에도 twitter가 제공하는 최신 기술 동향,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학생들 간의 연락 수단, 간략한 통신, 컨퍼런스 및 특별 강좌에 관한 공유, 정보 마케팅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그림 7>은 Georgia대학 도서관의 SNS서비스를 나타낸 것이다.

9) <http://twitter.com/ugalibsref>



<그림 7> Georgia대학 도서관의 SNS 서비스

2.2.3 정보검색 지원

Library 2.0 서비스 중 이용자의 정보검색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으로는 태그구름과 폭소노미가 있다. 태그구름은 메타데이터에서 얻어진 태그들을 분석하여 중요도나 인기도 등을 고려해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사서에게는 이용자들의 검색 경향을 파악할 수 있고, 검색이 서툰 이용자에게는 매우 유용한 검색수단이 될 수 있다. 폭소노미는 이용자에 의한 분류로 사서가 미처 입력하지 못한 키워드를 이용자가 직접 입력하여 검색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1) 태그구름

태그구름은 메타데이터에서 얻어진 태그들을 분석하여 중요도나 인기도 등을 고려하여 시각적으로 들어놓아 웹사이트에 표시하는 것으로 태그들의 글자 크기, 색상, 형태는 중요도나 인기도에 따라 생성된다. 태그구름은 보통 2차원의 표와 같은 형태로 태그들이 배치되며 이때 순서는 알파벳/가나다순이다. 시각적으로 중요도를 강조하기 위해 각 태그들은 그 중요도

(혹은 인기도)에 따라 글자의 색상이나 굵기 등 형태가 변한다. 이용자는 이렇게 표시된 태그 중 마음에 드는 키워드를 발견하고 그것을 선택하여 그 메타데이터에 원래 연결된 웹 페이지로 이동하게 된다.

대학도서관에서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과 펜실베니아대학교 도서관 등에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¹⁰⁾은 2007년 9월 홈페이지 개편과 함께 이용자 참여형 서비스의 일환으로 태깅 기술을 적용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서울대학교의 학술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단행본, 학위논문, 서울대 학위논문 원문, 연속간행물, 고문헌, 비도서 자료 등 각종 유형의 소장 자료와 Database, e-Journal 등의 e-Resource 등 각종 디지털 콘텐츠 등에 모두 태그를 달 수 있다. 태그 입력 시 입력 창 아래의 ‘나의 tag’를 통해 자신의 태그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태그를 통한 개인 자료 관리가 용이하며 일관성 있는 태그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My Library’의 ‘My tag’는 이용자로 하여금 해당 태그에 관한 자료를 쉽게 모아서 관리할 수 있는 개인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자료검색’의 ‘Tag Cloud’는 다른 이용자들과 태그를 공유함으로써 정보의 브라우징을 통한 검색을 가능하게 한다(박태연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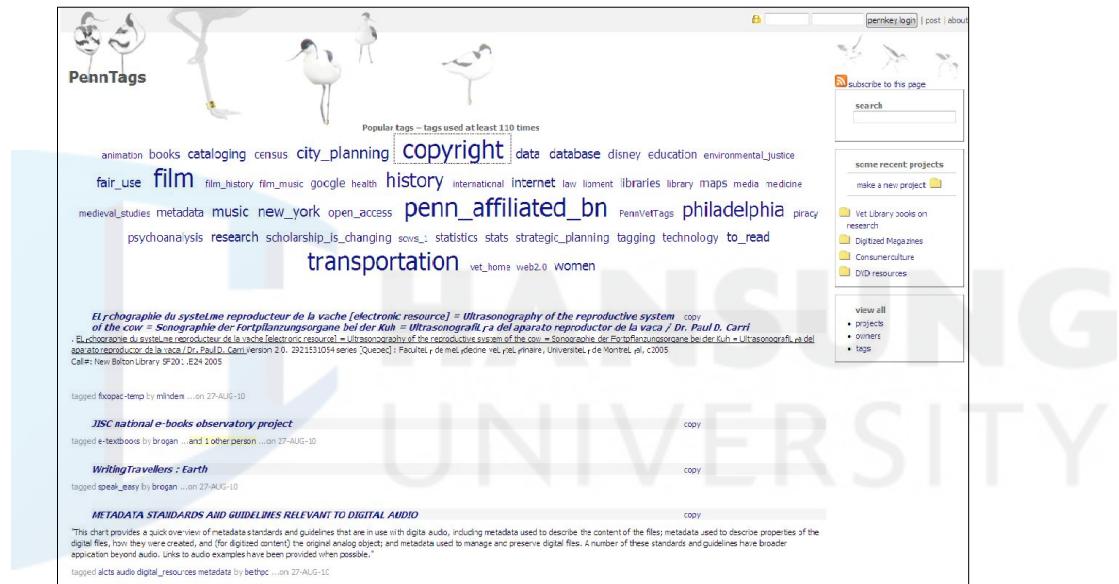
PennTags¹¹⁾는 펜실베니아대학교 도서관에서 이용자 태깅 방식을 도서관에 도입한 실험적 프로젝트로서 2005년 가을부터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PennTags를 통해 펜실베이니아대학의 구성원이면 누구나 인터넷 자료의 URL, 학술지 논문에 대한 링크, 온라인목록 Franklin의 서지 레코드, 온라인 비디오 목록인 VCat의 목록 레코드 등 대학도서관의 온라인 목록이 수록하고 있는 양질의 자료들과 웹 사이트들을 북마크 할 수 있다. 북마크하고 난 후에는 각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태그 순으로 정렬하거나 프로젝트 단위로 모을 수 있다. 프로젝트란 이용자가 정의한 자신의 북마크 모음으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가질 수 있다. PennTags에서는 여타 소셜 북마킹 도구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등록한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자기 관심과 관련된 주제와 관심사가 비슷한 다른 사람을 파악

10) <http://library.snu.ac.kr/TagCloud.jsp>

11) <http://tags.library.upenn.edu/>

할 수 있다. 온라인 목록의 각 서지레코드에는 말미에 이용자가 부여한 태그와 함께 주석이 제시된다. 사실상 이용자 태깅만 아니라 이용자 주석까지 수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PennTags는 메인 화면에서 최근 인기 태그들로 이루어진 태그 클라우드를 제공한다. 태그 클라우드의 인기 태그는 최소 110회 이상 사용되었던 태그 50건을 보여주고 있으며(2010.8.28 기준) 우측 메뉴를 통하여 최근의 프로젝트 디렉토리와 작성자별, 태그별, 프로젝트별 태그를 브라우징하고 검색할 수 있다. 프로젝트 디렉토리는 이용자가 직접 만들 수 있고 해당 주제와 관련된 태그들을 볼 수 있도록 해준다. 아래의 <그림 8>은 펜실베니아 대학도서관의 PennTags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8> 펜실베이니아대학 도서관의 태그구름 서비스

2) 폭소노미

폭소노미는 KDC, DDC, 주제명 표목과 같은 전통적인 분류 체계에 대칭되는 용어로 사람들에 의한 분류법 (Folk+order+nomos)이다. 협력태깅 (collaborative tagging), 사회적 분류(social classification), 사회적 색인 (social indexing), 사회적 태깅(social tagging)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이정

미 2007). 이용자는 정보 객체에 그 정보를 잘 표현해준다고 판단한 태그(꼬리표)를 입력함으로써 정보 분류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렇게 태그를다는 행위를 태깅이라고 하며 태깅은 폭소노미를 대표한다. 폭소노미는 복잡하지 않고 자유롭게 누구나 쉽게 태그 주제어를 달 수 있으며 관리자가 부여한 주제어보다 실제 정보를 이용하는 관점에서 더 적합한 주제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부여된 태그를 통해서 이용자는 우연한 발견의 기회를 만날 수 있다.

대학도서관에서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¹²⁾과 영진전문대학 도서관¹³⁾ 등에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폭소노미는 이용자 스스로 자료의 주제어를 선정하여 태그에 입력하는 방식인데, 아직까지는 이러한 방법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고 이용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실제 활용은 잘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폭소노미를 실시하는 대학도서관에서는 담당사서가 직접 태그를 부여하거나 관련 전공자에게 태그 입력을 부탁하기도 한다. <그림 9>는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폭소노미 서비스를 나타낸 것이다.



12) <http://library.sun.ac.kr>

13) <http://library.yjc.ac.kr>

번호	소장위치	청구기호▲	도서상태	반납기한/반납시간
1	중앙도서관 단행본자료실	813.73 B149c 2007	대출중 예약 1순위 반납점검	2010-04-28
2	중앙도서관 단행본자료실	813.73 B149c 2007 c.2	대출중 예약 1순위 반납점검	2010-04-07
3	의학도서관 1층단행본	813.73 B149c 2007	대출가능	2009-11-15 11:12
4	의학도서관 1층단행본	813.73 B149c 2007 c.2	대출가능	2009-09-07 15:59
5	농학도서관 단행본서고	813.73 B149c 2007	대출가능	2010-02-04 13:24
6	농학도서관 단행본서고	813.73 B149c 2007 c.2	대출가능	2010-01-18 09:18
7	사회도서관 단행본서고	813.73 B149c 2007	대출가능	2009-11-26 09:04
8	사회도서관 단행본서고	813.73 B149c 2007 c.2	대출가능	2009-12-20 14:17
9	기계항공공학부 교양도서 세고	813.73 B149c 2007	대출가능	2009-09-21 14:16

<그림 9>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폭소노미 서비스

2.2.4 정보서비스 기능 강화

Library 2.0 서비스 중 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으로는 툴바와 위젯이 있다. 툴바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아도 검색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정보검색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다. 위젯은 자신이 원하는 메뉴와 기능을 원하는 위치에 배치하는 것으로 개인의 정보이용 성향을 충족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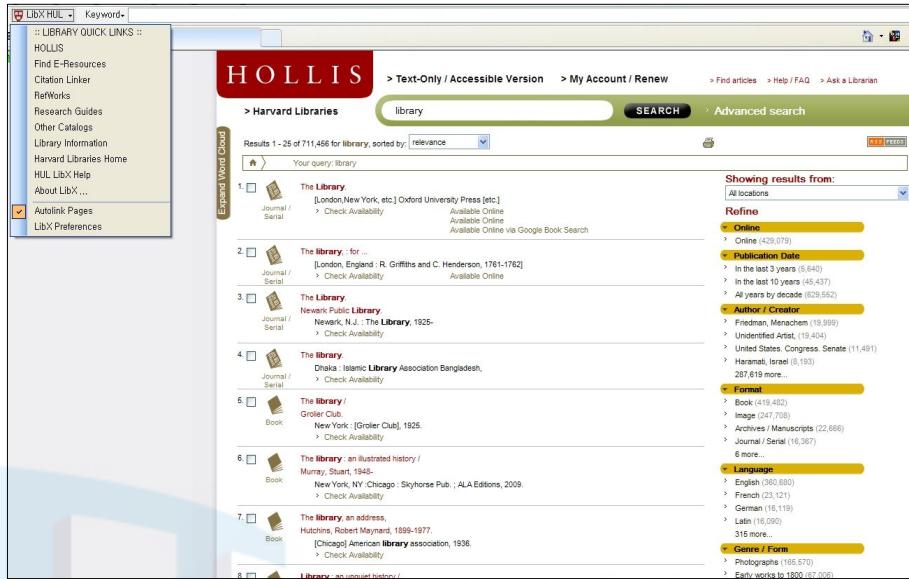
1) 툴바

툴바는 브라우저 사용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도구모음으로 웹브라우저에 하나의 확장프로그램을 설치함으로써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고도 검색, 사전, 블로그, 무료 백신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대학도서관에서는 하버드대학교도서관과 포항공대도서관 등에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하버드대학 도서관¹⁴⁾에서는 Virginia Tech대학 도서관과 컴퓨터공학과

14) <http://lib.harvard.edu/tools/libx.html>

에서 Firefox 웹브라우저의 확장모듈로 개발한 LibX를 이용하여 도서관 툴바를 구현하였다. 툴바 설치로 도서관 인터페이스를 거치지 않고 웹브라우저에서 도서관의 OPAC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현실 2009). <그림 10>은 하버드대학 도서관의 툴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0> 하버드대학 도서관의 툴바 서비스

포항공과대학교 청암학술정보관¹⁵⁾에서는 도서관 툴바로 도서관 목록과 리소스들을 검색/연동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LibX 툴바와 오른쪽 클릭 메뉴를 통해서 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지 않고 바로 목록 검색을 할 수 있다. 도서관의 교외 접속 프락시 서버를 사용하여 교외(off-campus)에서도 교내처럼 전자저널 등의 아티클을 볼 수 있다. 또한 Google Scholar를 이용하여 도서관이 구독 중인 전자 형태의 아티클을 검색하여 이용자에게 바로 연결시켜준다. 서지사항을 드래그로 선택한 후에 툴바의 Scholar라는 버튼 위에 떨어뜨리면 이 기능을 실행할 수 있다.

LibX는 도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방문 시 해당 자료가 도서관에

15) <http://postechlibrary.tistory.com/27>

있는지 검색할 수 있는 아이콘을 화면에 표시해 준다. 예를 들면, Amazon이나 Barnes & Noble의 도서 정보 페이지를 클릭하면 포항공대 도서관의 해당자료 항목으로 링크되는 아이콘을 보여준다. 구글, 야후, 뉴욕타임즈 서평란과 기타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다. 동일한 도서도 페이퍼백, 하드커버, 판차(edition), 또는 번역본에 따라 다른 ISBN을 가지고 있는데 LibX는 OCLC의 xISBN service를 통해서 하나의 ISBN을 가지고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다른 ISBN의 동일 도서도 찾아준다.

2) 위젯

위젯은 웹사이트의 개인화 서비스로 자신이 원하는 메뉴와 기능을 원하는 위치에 배치할 수 있는 기능이다. 대학도서관에서는 명지대학교 도서관, NCSU 도서관 등에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명지대학교 방목학술정보관¹⁶⁾은 2010년 신축도서관 개관과 함께 홈페이지 개편을 하면서 위젯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이용자 본인이 위젯을 추가해서 원하는 위치에 배치하여 자주 이용하는 정보를 구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글의 개인화 서비스와 같은 것이다. 아래 <그림 11>은 명지대학교 도서관의 위젯 서비스를 나타낸 것이다.

NCSU(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도서관¹⁷⁾은 구글 개인화 페이지(가젯)에 NCSU 도서관 목록 검색창을 추가하여 개인페이지에서 도서관 목록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6) <http://lib.mju.ac.kr/index.ax>

17) <http://www.lib.ncsu.edu/dli/projects/catalogwsapps/>



<그림 11> 명지대학교 도서관의 위젯 서비스

2.3 전문대학도서관의 Library 2.0 서비스 현황

전문대학도서관의 Library 2.0 서비스는 2008년 9월 영진전문대학도서관에서 KERIS와 Open API를 활용한 통합검색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영진전문대학도서관은 개발기술을 KERIS의 사서커뮤니티를 통해 공개하면서 이 서비스의 대학도서관 확산에 도움을 주었다. 이후에 전문대학도서관에서는 Library 2.0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도서관자동화시스템 업체 등을 통해 Library 2.0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현재, 전문대학도서관에서 도입하고 있는 Library 2.0 서비스는 <표 2>와 같다.¹⁸⁾

18) 전문대학도서관의 Library 2.0 서비스 현황 파악은 2010년 9월을 기준으로 전문대학도서관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자동화시스템 업체에게 문의하여 답변을 얻은 사항을 정리하였다. 모든 전문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인 전문대학도서관의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표 2> 전문대학도서관의 Library 2.0 서비스 도입

대학명	적용	개발형식
영진전문대학	Open API(KERIS, NAVER, Google, Flicker, YES24), 폭소노미, 태그구름, 블로그	자체개발
경민대학	Open API(KERIS), RSS	미르테크
공주영상대학	Open API(YouTube, Flicker), RSS, 폭소노미	라이브텍
군장대학	Open API(KERIS), RSS	인포테크
김포대학	Open API(YouTube, Flicker), RSS, 폭소노미	라이브텍
대구공업대학	Open API(KERIS), RSS	인포테크
대림대학	Open API(YouTube, Flicker), RSS, 폭소노미	라이브텍
동강대학	Open API(KERIS), RSS	인포테크
동부산대학	Open API(KERIS), RSS	인포테크
동서울대학	Open API(YouTube, Flicker), RSS, 폭소노미	라이브텍
동아방송대학	Open API(YouTube, Flicker), RSS, 폭소노미	라이브텍
동원대학	Open API(KERIS, NAVER, YouTube, Flicker), 폭소노미	라이브텍
동주대학	Open API(KERIS), RSS	인포테크
삼육보건대학	Open API(KERIS), RSS	인포테크
서울예술대학	Open API(YouTube, Flicker), RSS, 폭소노미	라이브텍
서일대학	Open API(YouTube, Flicker), RSS, 폭소노미	라이브텍
송호대학	Open API(KERIS), RSS	인포테크
수원여자대학	Open API(KERIS, NAVER, Google, YouTube, Flicker), RSS, 블로그, 폭소노미(사서직접입력), 위젯	인포테크 (별도구매)
송의여자대학	Open API(YouTube, Flicker), RSS, 폭소노미	라이브텍
신구대학	Open API(YouTube, Flicker), RSS, 폭소노미	라이브텍
여주대학	Open API(YouTube, Flicker), RSS, 폭소노미	라이브텍
인덕대학	Open API(NAVER, Google, YouTube, Flicker), RSS, 블로그, 폭소노미(사서직접입력), 위젯	인포테크 (별도구매)
장안대학	Open API(KERIS, NAVER, YouTube), RSS, 폭소노미	라이브텍
한국철도대학	Open API(YouTube, Flicker), RSS, 폭소노미	라이브텍
한양여자대학	Open API(YouTube, Flicker), RSS, 폭소노미	라이브텍
혜전대학	Open API(KERIS), RSS	인포테크

전문대학도서관의 Library 2.0 서비스는 대부분 자체개발보다는 도서관 자동화시스템 업체 등에서 개발한 것을 사용하고 있다. 세부 기능은 Open

API, RSS, 블로그, 폭소노미, 태그구름, 위젯 등이다.

자체개발은 조사대상 중 영진전문대학도서관이 유일하며, Open API, 블로그, 폭소노미, 태그구름 등 가장 다양하게 Library 2.0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Open API의 제공방식에 있어서도 단순히 다른 기관의 데이터베이스와 서비스를 가져오는 형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MARC과 분류번호와의 연계를 통한 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구글의 위성지도와 플리커의 이미지는 MARC의 522태그와 분류번호 980의 주제어와 연계되어 해당 서비스가 도서관 홈페이지 목록정보에 구현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응용 서비스는 자체개발이 가질 수 있는 장점으로 기존 도서관의 정보서비스를 기반에 두고 다른 서비스가 결합되는 형태를 보여줌으로써 이용자로 하여금 도서관 중심의 정보서비스 효율성을 인식시키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외부업체개발은 전문대학도서관 Library 2.0 서비스 개발형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Library 2.0 서비스의 세부 기능 중 Open API, RSS, 블로그, 폭소노미, 위젯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Open API는 KERIS, NAVER, YouTube, Flickr 등의 검색결과를 연계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KERIS의 검색결과만을 연계시키고 있다. 이는 학술정보 제공이라는 도서관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거나 상업적인 사이트의 신뢰성을 믿지 못하는 등의 이유라 할 수 있다. 블로그는 수원여자대학도서관과 인덕대학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폭소노미는 이용자의 입력을 유도하는 영진전문대학과는 달리 수원여자대학과 인덕대학에서는 사서의 직접입력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서비스 도입이 아직은 초창기여서 이용자들의 입력을 유도하기 어렵고 일정부분 입력된 태그들이 있어야 이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이용자들이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한다.

이러한 외부업체의 Library 2.0 서비스 개발은 영진전문대학도서관의 사례처럼 응용 서비스의 형태로 발전한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사서의 전공지식과 이용자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할 수 없음으로 인한 외부업체 개발의 한계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문대학도서관은 인적자원이 부

족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산담당사를 두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전문대학도서관의 Library 2.0 서비스의 개발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웹사이트에 연계시키는 것은 외부업체에서 담당하고, 이 서비스의 설계와 구축과정은 사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개입하여 기존 도서관 정보서비스와 연계한 응용 서비스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야 Library 2.0 서비스가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형태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며, 도서관 정보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장 Library 2.0에 대한 인식 및 적용 분석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도서관 사서의 Library 2.0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적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전국 전문대학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설문지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 기술통계 등을 실시하였으며, 표본의 특성이 평가 항목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χ^2)을 사용하였다. 분석도구는 ‘SPSS for windows 18.0’을 사용하였다.

3.1 실증연구의 설계

설문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정보공시(2009)에 나와 있는 총 143개의 전문대학 중에서 학생 수가 4,000명 이상인 전문대학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50개의 전문대학이 선택되었고 이에 따라 선정된 50개의 전문대학의 도서관 사서 각 1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생 수로 전문대학 규모를 한정시킨 것은 Library 2.0 서비스를 도입할 정도의 예산과 학생이 확보되는 전문대학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을 선정하기 위해서다.

설문조사는 2010년 9월 28일에서 10월 8일까지 선정된 전문대학도서관의 사서 50여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상에서 실시하였다. 설문대상 전문대학 도서관은 <표 3>과 같다.

<표 3> 설문대상 전문대학도서관

순번	대학명	학생 수	순번	대학명	학생 수
1	경남정보대학	7,852	26	서일대학	6,207
2	경민대학	4,583	27	송원대학	4,390
3	경북대학	5,147	28	수원과학대학	6,128
4	경인여자대학	4,037	29	수원여자대학	4,966
5	계명문화대학	5,292	30	신구대학	6,436
6	광주보건대학	4,093	31	신흥대학	7,702
7	구미1대학	4,141	32	안산1대학	4,298
8	대구보건대학	7,289	33	안양과학대학	6,163
9	대덕대학	4,332	34	여주대학	5,513
10	대림대학	6,348	35	영남이공대학	5,884
11	대전보건대학	5,820	36	영진전문대학	8,154
12	동강대학	4,149	37	오산대학	4,831
13	동남보건대학	4,545	38	용인송담대학	4,208
14	동서울대학	5,875	39	우송정보대학	4,700
15	동양미래대학	6,018	40	울산과학대학	5,376
16	동원대학	4,226	41	유한대학	5,269
17	동의과학대학	5,573	42	인덕대학	6,175
18	두원공과대학	4,943	43	인천전문대학	6,333
19	마산대학	6,043	44	인하공업전문대학	6,176
20	명지전문대학	9,394	45	장안대학	6,831
21	목포과학대학	4,146	46	제주한라대학	4,428
22	백석문화대학	5,500	47	창원전문대학	4,794
23	부산정보대학	4,365	48	충청대학	5,223
24	부천대학	7,703	49	한양여자대학	6,640
25	서강정보대학	4,804	50	혜천대학	4,190

설문문항은 Library 2.0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적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문항은 류진희(2007), 김기숙(2008), 김동재(2008), 구중억(2009) 등의 논문에서 사용되었던 설문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수정·보완한 후에 전문대학도서관 사서 5명을 대상으로 설문 구성상의 오류와 문항 이해도 등을 점검하기 위해 사

전테스트를 실시하였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 다시 수정하여 설문문항을 완성하였다.

설문문항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Library 2.0 서비스에 대한 사서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Library 2.0 서비스의 인지, 이용 경험, 세부 기능 이용 경험, 교육 경험 등을 측정하였다.

둘째, 사서의 Library 2.0 서비스에 대한 적용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Library 2.0 서비스의 도서관 도입, 개발형태, 도입 기능, 도입 동기, 추가 희망 기능, 미도입 이유, 도입 희망 여부 등을 측정하였다.

셋째, 사서가 생각하는 Library 2.0 서비스의 활용도와 활성화 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구현된 Library 2.0 세부 서비스의 활용도, 도입 우선순위, 활성화 방안 등을 측정하였다. 설문지의 구성내용을 요약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설문지 구성내용

측정변수	설문내용
인식	Library 2.0 서비스 인지
	Library 2.0 서비스 이용 경험
	Library 2.0 서비스 세부 기능 이용 경험
	Library 2.0 서비스 교육 경험
적용	Library 2.0 서비스 도서관 도입
	Library 2.0 서비스 개발형태
	Library 2.0 서비스 도입 기능
	Library 2.0 서비스 도입 동기
	Library 2.0 서비스 추가 희망 기능
	Library 2.0 서비스 미도입 이유
	Library 2.0 서비스 도입 희망 여부
활성화	Library 2.0 서비스 적용 시 활용도
	Library 2.0 서비스 도입 우선순위
	Library 2.0 서비스 활성화 방안

3.2 설문응답자 분석

3.2.1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학생 수 4,000명 이상인 대학도서관에서 재직 중인 사서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이 중 41명의 설문지가 수집되었고 이에 따라 41개의 설문지가 분석되어 설문지의 회수율은 82%이다.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본의 응답자 중 ‘남성’은 21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51.2%, ‘여성’은 20명으로 48.8%로 나타났다. 도서관 근무연수는 ‘5년 미만’이 전체 응답자의 17.1%(7명), ‘5년 이상 10년 미만’이 24.4%(10명),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31.7%(13명), ‘15년 이상’이 26.8%(11명)로 나타났다.

담당업무는 ‘수서’가 전체 응답자의 34.1%(14명)로 가장 높은 비율이며, ‘기타’가 26.8%(11명)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기타의 내용은 대부분이 업무를 총괄하거나 도서관의 업무를 3~4개씩 겸하고 있다는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전문대학도서관의 평균 직원 수는 3명으로 인적자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9).

학교소재지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전체 응답자의 56.1%(23명)로 가장 높은 비율이며, 그 외 다른 지역(비수도권)은 43.9%(18명)로 나타났다. 학생 수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5,000명 미만’과 ‘5,000명 이상’의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눈 결과 ‘5,000명 미만’의 전문대학에 속하는 사서는 18명(43.9%)이고, 5천명 이상의 학생 수를 지닌 전문대학에 소속한 사서의 수는 23명(56.1%)로 나타났다.

<표 5>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41)

구 분	측정변수	표본(수)	백분율(%)
성별	남성	21	51.2
	여성	20	48.8
도서관 근무연수	5년 미만	7	17.1
	5년이상~10년미만	10	24.4
	10년이상~15년미만	13	31.7
	15년 이상	11	26.8
담당업무	수서	14	34.1
	분류·목록(정리)	9	22.0
	대출반납	1	2.4
	정보서비스	1	2.4
	연속간행물	2	4.9
	전산	3	7.3
	기타	11	26.8
학교소재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23	56.1
	광주	2	4.9
	대구	4	9.8
	대전	2	4.9
	부산	1	2.4
	울산	1	2.4
	경상도	4	9.8
	전라도	1	2.4
	충청도	2	4.9
	제주도	1	2.4
학생 수	강원도	0	0.0
	4,000명이상~5,000명미만	18	43.9
	5,000명이상~6,000명미만	10	24.4
	6,000명이상~7,000명미만	9	22.0
	7,000명이상~8,000명미만	2	4.9
	8,000명이상	2	4.9

3.2.2 Library 2.0 서비스 인식

전문대학도서관 사서들의 Library 2.0 서비스 인식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Library 2.0 서비스 중 Open API, RSS, 블로그, 태그구름, 트랙백, 폭소노미, 툴바, 소셜북마크, 위젯, SNS에 대한 인지, 이용 경험, 세부 기능 이용 경험, 교육 경험 등을 조사하였고 중복 응답을 허용하였다. Library 2.0 서비스 중 사서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기능은 RSS이며 그 다음으로는 블로그, Open API, 툴바, 위젯 순이다. 특히 41명 중 90%인 37명이 RSS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블로그는 약 71%가 Open API는 68%의 사서가 이미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학도서관에서 많이 도입하고 있거나, 포털 사이트 등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기능 위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사서들이 가장 알지 못하는 기능은 ‘태그구름(14.6%)’과 ‘폭소노미(7.3%)’로 나타나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정보서비스 관련 용어와 기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표 6 참조).

<표 6> Libray 2.0 서비스 인지

(복수 응답, N=41)

순위	구 분	응답		케이스퍼 센트
		응답자 수(명)	비율(%)	
1	RSS	37	19.4	90.2
2	블로그	29	15.2	70.7
3	Open API	28	14.7	68.3
4	툴바	25	13.1	61.0
5	위젯	19	9.9	46.9
6	소셜북마크	18	9.4	43.9
6	SNS	18	9.4	43.9
8	트랙백	8	4.2	19.5
9	태그구름	6	3.1	14.6
10	폭소노미	3	1.6	7.3
	합계	191	100.0	

또한 41명 중 26명(63%)이 Library 2.0 서비스에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미 Library 2.0 서비스를 사용해 본 26명의 사서를 대상으로 각각 세부 기능의 이용 경험을 알아보았다.

Library 2.0 서비스 중 사서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기능은 ‘RSS(88.5%)’, ‘블로그(76.9%)’, ‘Open API(73.1%)’, ‘툴바(57.7%)’ 순으로 나타나 <표 6>의 Library 2.0 서비스 인지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사서들이 가장 경험하지 못한 기능은 ‘SNS(15.4%)’, ‘트랙백(7.7%)’, ‘폭소노미(7.7%)’ 등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표 7> Library 2.0 서비스 세부 기능 이용 경험

(복수 응답, N=26)

순위	구 분	응답		케이스퍼센트
		응답자 수(명)	비율(%)	
1	RSS	23	21.7	88.5
2	블로그	20	18.9	76.9
3	Open API	19	17.9	73.1
4	툴바	15	14.2	57.7
5	태그구름	8	7.5	30.8
5	위젯	8	7.5	30.8
7	소셜북마크	5	4.7	19.2
8	SNS	4	3.8	15.4
9	트랙백	2	1.9	7.7
9	폭소노미	2	1.9	7.7
합계		106	100.0	

특이한 점으로 ‘SNS’는 <표 6>의 Library 2.0 서비스 인지에서 18명(43.9%)이 용어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표 7>의 이용 경험에서는 4명(15.4%)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SNS’에 대해 여러 매체를 통해 알고는 있으나 실제 이용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새로운 현상에 대한 사서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한편 Library 2.0 서비스 교육 경험에 대해서는 ‘경험 있음’이 10명으로 전체응답자의 24.4%, ‘경험 없음’이 31명으로 75.6%로 나타났다. 사서들의 Library 2.0 서비스 이용 경험이 26명(63.4%)이었던 것에 비해 교육 경험은 10명(24.4%)으로 낮게 나타나 사서들을 대상으로 한 Library 2.0 서비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2.3 Library 2.0 서비스 적용

Library 2.0 서비스의 도서관 도입에 대한 전문대학 사서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Library 2.0 서비스의 도서관 도입, 개발형태, 도입 기능, 도입 동기, 추가 희망 기능, 미도입 이유, 도입 희망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특히 이 부분은 Library 2.0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 도서관과 그렇지 않은 도서관을 구분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Library 2.0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 도서관은 14개(34.1%)였으며, 약 두 배인 27개(65.9%)의 도서관에서 도입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표 8 참조).

<표 8> Library 2.0 서비스 도서관 도입

구 분	응답자 수(명)	비율(%)
도입	14	34.1
미도입	27	65.9
합계	41	100.0

Library 2.0 서비스 개발형태는 이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 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자체개발’은 2명으로 전체응답자의 14.3%, ‘외부업체 개발’이 12명으로 85.7%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도서관이 자체개발보다는 외부업체 개발방식에 의해 이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ibrary 2.0 서비스는 개발원천기술이 대부분 공유되어 있어 전산에 대한 지식이 일정부분만 있으면 누구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외부업체

에 의한 개발방식은 사서의 주도적인 참여와 개별 도서관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하는 일괄적용 방식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외부업체 개발보다는 전산사서 등의 인적자원이 개별도서관 이용자의 정보이용 특성에 맞는 Library 2.0 서비스를 자체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외부업체에 의한 개발이 되어야 한다면 사서의 주도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Library 2.0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기능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능은 ‘RSS(92.9%)’와 ‘Open API(71.4%)’였다. 그 다음으로 ‘블로그(28.6%)’, ‘위젯(21.6%)’, ‘태그구름(14.3%)’, ‘폭소노미(14.3%)’, ‘소셜북마크(7.1%)’ 순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비율은 상당히 떨어진다. 또한 ‘트랙백’, ‘툴바’, ‘SNS’는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9 참조).

<표 9> Library 2.0 서비스 도입 기능

(복수 응답, N=14)

순위	구 분	응답		케이스퍼 센트
		응답자 수(명)	비율(%)	
1	RSS	13	37.1	92.9
2	Open API	10	28.6	71.4
3	블로그	4	11.4	28.6
4	위젯	3	8.6	21.6
5	태그구름	2	5.7	14.3
5	폭소노미	2	5.7	14.3
7	소셜북마크	1	2.9	7.1
8	트랙백	0	0.0	0.0
8	툴바	0	0.0	0.0
8	SNS	0	0.0	0.0
합계		35	100.0	

Library 2.0 서비스를 도입한 도서관의 사서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도입한 동기에 대해 조사하였다. Library 2.0 서비스 주요 도입 동기는 ‘다른

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기 위해서'(35.7%), '도서관 정보검색서비스 개선을 위해'(21.5%), '도서관에 대한 이용자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14.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시스템업체에서 제공'과 '풍부한 검색결과를 유도하기 위해서'로 응답한 의견도 있었다(표 10 참조).

이러한 결과는 Library 2.0 서비스의 도서관 도입이 대부분 도서관의 정보자원 확충과 검색서비스 개선 및 이용자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0> Library 2.0 서비스 도입 동기

(N=14)

구 분	응답자 수(명)	비율(%)
다른 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기 위해	5	35.7
도서관 정보검색서비스 개선을 위해	3	21.5
도서관에 대한 이용자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2	14.3
도서관 정보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해	1	7.1
도서관 개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1	7.1
도서관홍보와 소식(이용안내 등)을 전하기 위해	0	0.0
이용자 간 소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0	0.0
기타	2	14.3
합계	14	100.0

다음은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 전문대학도서관의 사서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도입하고 싶은 Library 2.0 기능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사서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기능은 14명 중 7명이 선택한 'SNS(50.0%)'였으며, 그 다음으로 관심을 보인 기능은 '태그구름(35.7%)', '소셜북마크(35.7%)', '위젯(35.7%)'이었다(표 11 참조).

〈표 11〉 Library 2.0 서비스 추가 희망 기능

(복수 응답, N=14)

순위	구 분	응답		케이스퍼센트
		응답자 수(명)	비율(%)	
1	SNS	7	21.2	50.0
2	태그구름	5	15.1	35.7
2	소셜북마크	5	15.1	35.7
2	위젯	5	15.1	35.7
5	Open API	3	9.1	21.4
5	블로그	3	9.1	21.4
7	트랙백	2	6.1	14.3
7	폭소노미	2	6.1	14.3
9	툴바	1	3.0	7.1
10	RSS	0	0.0	0.0
	합계	33	100.0	235.7

이 결과 Open API와 RSS가 사서들이 가장 선호하는 Library 2.0 서비스이며 그 다음으로 ‘위젯’, ‘블로그’, ‘태그구름’, ‘SNS’, ‘소셜북마크’, ‘폭소노미’, ‘트랙백’, ‘툴바’ 순으로 선호하였다. 특히 ‘SNS’ 서비스는 실제 도서관에서 제공되고 있지는 않지만 가장 도입하고 싶은 서비스로 밝혀졌다. 따라서 많은 사서들이 SNS에 높은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Library 2.0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전문대학도서관 사서들에게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와 서비스 도입 희망 여부를 조사하였다. Library 2.0 서비스 미도입 이유는 ‘예산이 부족해서’(51.9%)와 ‘인력이 부족해서’(18.5%)가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나 전문대학도서관의 예산과 인적자원의 부족이 향상된 정보서비스 도입에 가장 큰 장애요인인 것을 알 수 있다(표 12 참조).

Library 2.0 서비스는 최소한의 비용과 인력으로 우수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한꺼번에 모든 Library 2.0 서비스의 기능을 도입하기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표 12> Library 2.0 서비스 미도입 이유

(N=27)

구 분	응답자 수(명)	비율(%)
예산이 부족해서	14	51.9
인력이 부족해서	5	18.5
기존 도서관시스템으로도 충분한 정보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2	7.4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1	3.7
이용자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야기할 것 같아서	0	0.0
기타	5	18.5
합계	27	100.0

Library 2.0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도서관 사서들에게 이 서비스 도입에 대한 희망여부를 조사하였다. Library 2.0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도서관의 사서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능은 역시 ‘Open API(88.5%)’와 ‘RSS(88.5%)’이고, ‘툴바(80.8%)’, ‘태그구름(76.9%)’, ‘SNS(76.9%)’, ‘블로그(65.4%)’, ‘트랙백(61.5%)’, ‘소셜북마크(57.7%)’, ‘위젯(42.3%)’, ‘폭소노미(30.4%)’ 순으로 나타났다(표 13 참조).

<표 13>에 나타난 결과와 <표 9>의 Library 2.0 서비스 도입 기능, <표 11>의 추가 도입 희망 기능에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종합해 보면 설문에 응답한 전체 전문대학도서관 사서들이 선호하는 Library 2.0 서비스 기능은 ‘Open API’와 ‘RSS’이며, ‘SNS’는 사서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기능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표 13> Library 2.0 서비스 도입 희망 여부

(복수 응답, N=27)

순위	구 분	응답		케이스퍼센트
		응답자 수(명)	비율(%)	
1	Open API 서비스를 활용한 KERIS, NAVER, Google 등의 DB와 연계 검색 / 희망도서 신청 시 YES 24 등의 Open API 이용	23	13.2	88.5
1	RSS를 활용하여 도서관 신착자료, 공지사항 제공	23	13.2	88.5
3	툴바를 활용하여 도서관 자료검색 등의 서비스 구현	21	12.1	80.8
4	태그구름을 활용하여 이용자 검색어의 인기도나 중요도를 시각적으로 표현	20	11.5	76.9
4	트위터와 미투데이 등을 활용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단문메세지 등을 통해 도서관 정보 제공	20	11.5	76.9
6	블로그를 활용하여 도서관 정보제공 및 이용자 참여서비스 제공	17	9.8	65.4
7	트랙백을 활용하여 도서관의 유용한 정보를 개인 블로그 등에 링크할 수 있도록 구현	16	9.2	61.5
8	소셜북마크를 활용하여 이용자가 서평 등을 통해 자료를 소개할 수 있는 환경구현	15	8.6	57.7
9	위젯을 활용하여 도서관사이트에서 개인이 원하는 메뉴와 기능을 원하는 위치에 배치하는 서비스 구현	11	6.3	42.3
10	폭소노미를 활용하여 이용자가 직접 주제를 부여하게 구현	8	4.6	30.4
합계		174	100.0	

3.2.4 Library 2.0 서비스 활성화

전문대학 도서관에서 Library 2.0 서비스를 적용할 때 우선적으로 도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파악하고자 사서가 생각하는 활용도가 높고 먼저 도입하고자 하는 Library 2.0 서비스를 조사하였다.

Library 2.0 서비스를 도서관에 적용할 때 활용 수준을 사서들에게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사서들은 ‘Open API’ 기능이 도서관

에서 가장 높은 활용도(3.80)를 가질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Open API’는 전문대학도서관의 부족한 소장자료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예를 들어 KERIS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석·박사학위논문과 학회논문 등의 학술자원을 확충하고 네이버 및 구글 등의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전과 지도 및 이미지 등의 정보자원을 보강한다면 소장자료 부족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높은 활용도를 가질 것이라고 평가된 기능은 바로 ‘RSS’이다. ‘RSS’는 이용자가 도서관 홈페이지에 방문하지 않고도 도서관의 각종 소식과 최신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로 인적자원이 부족하여 도서관 정보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지 못하는 전문대학도서관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블로그’는 평균 평점 3.32로 세부 기능 중 세 번째로 높은 활용도가 있을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블로그’는 도서관에서 제공되는 공식적인 정보와는 차별화된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해준다. 즉, 사서들의 자유로운 글쓰기에 의하여 이용자는 새로운 정보를 접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이용자의 답변을 통하여 이용자와 사서간의 양방향 정보 유통을 가능하게 해 준다. 또한 블로그에 새로운 글들이 올라오면 ‘RSS’를 통해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어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인적자원이 부족한 전문대학도서관은 블로그 운영이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포털 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가입형 블로그 등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이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SNS’는 평균 평점 3.17로 세부 기능 중 네 번째로 높은 활용도를 보여 준다. ‘SNS’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커뮤니티형 웹사이트로 사서들이 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 주었는데 실제 활용도에서도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이를 활용하는 방법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의 가입형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과 이러한 형식의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것이 있다. 인적자원의 부족으로 이러한 웹사이트의 개발 여력이 없다면 기존 가입형 웹사이트를 통해 SNS 서비스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활성화가 이루어지면 관심 있는 전문대학도서관 사서들이 모여 공동으로

전문대학도서관 이용자에게 적합한 커뮤니티형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외 활용도는 ‘툴바(3.12)’, ‘소셜북마크(3.10)’, ‘위젯(3.10)’ ‘태그구름(3.05)’ ‘트랙백(2.90)’ ‘폭소노미(2.80)’ 순으로 나타났다(표 14 참조). 이러한 세부 기능은 대부분 이제 막 도서관에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기능 및 효과를 파악하지 못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의견을 갖지 않는 것 같다. 또한 폭소노미의 기능이 도서관서비스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서가 11명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Library 2.0 서비스 적용 시 활용도

(N=41)

순위	구 분	매우 낫다 (1점)	낫다 (2점)	보통 이다 (3점)	높다 (4점)	매우 높다 (5점)	평균 평점
1	Open API	1 (1)	3 (6)	10 (30)	16 (64)	11 (55)	3.80
2	RSS	2 (2)	3 (6)	15 (45)	18 (72)	3 (15)	3.41
3	블로그	3 (3)	3 (6)	18 (54)	12 (48)	5 (25)	3.32
4	SNS	1 (1)	8 (16)	17 (51)	13 (52)	2 (10)	3.17
5	툴바	3 (3)	5 (10)	19 (57)	12 (48)	2 (10)	3.12
6	소셜북마크	1 (1)	7 (14)	21 (63)	11 (44)	1 (5)	3.10
6	위젯	2 (2)	7 (14)	20 (60)	9 (36)	3 (15)	3.10
8	태그구름	2 (2)	7 (14)	21 (63)	9 (36)	2 (10)	3.05
9	트랙백	1 (1)	8 (16)	26 (78)	6 (24)	0 (0)	2.90
10	폭소노미	5 (5)	6 (12)	23 (69)	6 (24)	1 (5)	2.80

다음은 사서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싶은 기능을 1순위에서

3순위까지 별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응답결과는 우선순위 중 1순위에 3점, 2순위에 2점, 3순위에 1점을 부여하여 순위 간 배점을 차등하였다.

‘Open API’가 가장 높은 점수(87점)를 얻었으며 ‘RSS’는 55점으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사서들은 전문대학도서관에 가장 먼저 필요한 Library 2.0 서비스가 소장자료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Open API’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블로그’의 응답점수는 33점으로 전체 세부 기능 중 세 번째로 높은 점수이다. 전문대학도서관은 인적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블로그의 개설과 운영이 쉽지 않은 일인데 ‘블로그’에 대한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온 것은 전문대학도서관 사서들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보서비스 향상을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15> Library 2.0 서비스 도입 우선순위

(복수 응답, N=41)

순위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점수 합계
1	Open API	26 (78)	2 (4)	5 (5)	87
2	RSS	6 (18)	18 (36)	1 (1)	55
3	블로그	5 (15)	5 (10)	8 (8)	33
4	툴바	1 (3)	2 (4)	6 (6)	13
4	소셜북마크	0 (0)	4 (8)	5 (5)	13
4	위젯	0 (0)	3 (6)	7 (7)	13
7	SNS	2 (6)	1 (2)	3 (3)	11
8	폭소노미	0 (0)	3 (6)	2 (2)	8
9	태그구름	0 (0)	2 (4)	3 (3)	7
10	트랙백	1 (3)	1 (2)	1 (1)	6
	합계				246

다음으로 ‘툴바(13)’, ‘소셜북마크(13)’, ‘위젯(13)’, ‘SNS(11)’, ‘폭소노미(8)’, ‘태그구름(7)’, ‘트랙백(6)’ 순으로 도입을 원했지만 이들의 점수는 상당히 낮다. 이는 대부분의 사서들이 앞에서 언급한 ‘Open API’, ‘RSS’, ‘블로그’를 가장 선호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표 15 참조).

Library 2.0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사서들에게만 질문한 결과 ‘이용자들에게 관련서비스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10명의 사서(38%)가 활성화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방안으로 꼽았고 다음으로는 8명의 사서(31%)가 교육과 지원이라고 응답하였다(표 16 참조). 이로써 사서들은 Library 2.0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도서관은 단순히 도서관 홈페이지 게시와 유인물 등을 통해 안내하기보다는 수업시간을 활용한 이용자교육이나 특강 등의 형식을 통해 좀 더 능동적으로 이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체험 이벤트 등을 통해 이용자들이 쉽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전문대학도서관은 예산과 인적자원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Library 2.0 서비스는 저비용으로 구현할 수 있고, 개발기술과 서비스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사서들에게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교육과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과 지원은 대학도서관 네트워크의 중심역할을 하는 KERIS와 전문대학도서관 네트워크인 한국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등의 기관에서 사서교육과 직무연수 등을 통해 실시한다면 보다 공식적이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고 본다.

이 외에 ‘Library 2.0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전문전산사서의 확보’가 4명(15.4%), ‘Library 2.0 서비스 도입을 위한 예산의 확보’가 3명(11.5%)으로 인적자원과 예산의 부족에 대한 의견을 도출시켰다(표 16 참조).

<표 16> Library 2.0 서비스 활성화 방안

(N=26)

구 분	응답자 수	비율(%)
이용자들에게 관련서비스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	10	38.5
사서들에게 Library 2.0 서비스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	8	30.8
Library 2.0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전문전산사서의 확보	4	15.4
Library 2.0 서비스 도입을 위한 예산의 확보	3	11.5
기타	1	3.8
합계	26	100.0

3.2.5 변인 간 교차분석

본 장에서는 전문대학의 특성과 사서의 특성에 따라 Library 2.0 서비스 도입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표본 특성(대학 소재지, 학생 수)에 따른 Library 2.0 서비스 이용 경험, Library 2.0 서비스 교육 경험, Library 2.0 서비스 도서관 도입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한 교차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Library 2.0 서비스 이용 경험과 교육 경험에 따른 도서관 도입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1) 표본 특성에 따른 차이

(1) 이용 경험의 차이

Library 2.0 서비스 이용 경험이 대학이 소재하는 지역별로 또 학생 수에 따른 대학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표 17 참조). 수도권 소재의 대학(69.2%)이 비수도권 소재의 대학(30.8%)보다 Library 2.0 서비스 이용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26$). 또 학생 수가 5,000명 이상인 대학(57.7%)이 학생 수가

5,000명 미만인 대학(42.3%)보다 Library 2.0 서비스 이용 경험이 더 많게 나타났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p = .086$).

수도권은 우리나라 정치와 사회 및 경제 등 대부분의 분야에 있어 그 자원과 역량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다. 대학과 대학도서관 역시 예외는 아니다. 대학도서관에 적용할 만한 새로운 정보와 정보서비스 동향에 대한 교육과 세미나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대학도서관은 이러한 정보 교류의 장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많으며, 이러한 정보를 제공받기 힘든 비수도권 대학도서관은 Library 2.0 서비스의 이용 경험이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표 17> 대학 소재지 및 학생 수에 따른 Library 2.0 서비스 이용 경험 비교

구분		Library 2.0 서비스 이용 경험		유의도
		경험집단	미경험집단	
대학 소재지	수도권	18(69.2%)	5(33.7%)	$\chi^2 = 4.977$ $df = 1$ $p = 0.026^*$
	비수도권	8(30.8%)	10(66.7%)	
학생 수	4,000명 이상~5,000명 미만	11(42.3%)	7(46.7%)	$\chi^2 = 0.073$ $df = 1$ $p = 0.086$
	5,000명 이상	15(57.7%)	8(53.3%)	

* $p \leq 0.05$

(2) 교육 경험의 차이

Library 2.0 서비스 교육 경험의 차이가 대학이 소재하는 지역별로 또 학생 수에 따른 대학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표 18 참조). 수도권 소재의 대학(70%)이 비수도권 소재의 대학(30%)보다 Library 2.0 서비스 교육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p = .308$). 교육 경험은 전체 응답자 41명 중 10명만이 ‘있음’에 응답한 것으로 교육 기회 자체가 많지 않아 나타난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또 Library 2.0 서비스 교육 경험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 = .308$). 따라서 교육 경험은 대학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사서의 관심도에 의하여 교육을 받고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표 18> 대학 소재지 및 학생 수에 따른 Library 2.0 서비스 교육 경험 비교

구분		Library 2.0 서비스 교육 경험		유의도
		경험집단	미경험집단	
대학 소재지	수도권	7(70.0%)	16(51.6%)	$\chi^2 = 1.038$ df = 1 $p = 0.308$
	비수도권	3(30.0%)	15(48.4%)	
학생 수	4,000명 이상~5,000명 미만	3(30.0%)	15(48.4%)	$\chi^2 = 1.038$ df = 1 $p = 0.308$
	5,000명 이상	7(70.0%)	16(51.6%)	

* $p \leq 0.05$

(3) 도서관 도입의 차이

Library 2.0 서비스 도서관 도입의 차이가 대학이 소재하는 지역별로 또 학생 수에 따른 대학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표 19 참조). 수도권 소재의 대학(78.6%)이 비수도권의 소재의 대학(21.4%)보다 Library 2.0 서비스 도서관 도입이 높았으며, 이 두 그룹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37$).

Library 2.0 서비스의 도서관 도입 여부와 전문대학의 규모간의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두 그룹 대규모 대학과 소규모 대학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p = .923$).

<표 19> 대학 소재지 및 학생 수에 따른 Library 2.0 서비스 도서관 도입 비교

구분		Library 2.0 서비스 도서관 도입 여부		유의도
		도입	미도입	
대학 소재지	수도권	11(78.6%)	12(44.4%)	$\chi^2 = 4.360$ df = 1 p = 0.037*
	비수도권	3(21.4%)	15(55.6%)	
학생 수	4,000명 이상~5,000명 미만	6(42.9%)	12(44.4%)	$\chi^2 = 0.009$ df = 1 p = 0.923
	5,000명 이상	8(57.1%)	15(55.6%)	

*p≤0.05

전체적으로 Library 2.0 서비스 도서관 도입 여부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표 17>의 Library 2.0 서비스 이용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Library 2.0 서비스 이용 경험이 많다는 것은 이와 관련된 교육과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과 정보를 많이 접한 수도권 대학도서관은 Library 2.0 서비스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실제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기술한대로 대학도서관 관련 교육 및 세미나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은 Library 2.0 서비스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얻을 기회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Library 2.0 서비스에 대한 교육과 정보 획득의 차등은 이용 기회의 차이로 연결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문대학도서관의 정보와 정보서비스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이용 경험과 교육 경험에 따른 도서관 도입의 차이

(1) 이용 경험의 차이

Library 2.0 서비스 이용 경험에 따른 Library 2.0 서비스 도입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용 경험집단과 이용 미경험집단간의 교차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이용 경험 집단(92.9%)이 미경험 집단(7.1%)보다 도입을 많

이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0 참조).

<표 20> Library 2.0 서비스 이용 경험에 따른 도서관 도입 비교

구분		Library 2.0 서비스 도서관 도입		유의도
		도입 도서관	미도입 도서관	
Library 2.0 서비스 이용 경험	경험 집단	13(92.9%)	13(48.1%)	$\chi^2 = 7.943$ df = 1 p = 0.005*
	미경험 집단	1(7.1%)	14(51.9%)	

*p≤0.05

Library 2.0 서비스의 이용 경험 유무는 이 서비스의 도서관 도입 여부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것으로, 실제 이 서비스를 이용해 본 사서는 도서관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도입하여 운영한다는 의미이다.

(2) 교육 경험의 차이

Library 2.0 서비스 교육 경험에 따른 Library 2.0 서비스 도서관 도입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육 경험집단과 교육 미경험 집단 간의 교차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상호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1 참조).

<표 21> Library 2.0 서비스 교육 경험에 따른 도서관 도입 비교

구분		Library 2.0 서비스 도서관 도입		유의도
		도입 도서관	미도입 도서관	
Library 2.0 서비스 교육 경험	경험 집단	5(35.7%)	5(18.5%)	$\chi^2 = 1.478$ df = 1 p = 0.224
	미경험 집단	9(64.3%)	22(81.5%)	

*p≤0.05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게 Library 2.0 서비스 이용 경험이 많고 도서관에 더 많이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ibrary 2.0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은 수도권 전문대학도서관이 상대적으로 이용 경험 기회가 많지 않은 비수도

권에 비해 Library 2.0 서비스 도서관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3.2.6 Library 2.0 서비스에 대한 사서 의견 분석

본 연구는 전문대학도서관의 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Library 2.0 서비스의 도서관 적용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의견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제 Library 2.0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 도서관 중 세 개의 대학도서관에 소속한 사서를 선정하여 구조적 면담을 수행하였다.

면담 대상은 Y전문대학도서관, K대학도서관, D대학도서관 사서이며,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Y전문대학도서관은 전국대학도서관 최초로 2008년 9월부터 KERIS와의 협력을 통해 Open API을 활용하여 통합검색을 구현하였으며, 그 해 10월부터 이용자의 도서검색 시 도서관 여행 관련 도서와 구글 위성지도와 플리커를 연결하여 위성지도와 이미지 제공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이 외에도 ‘블로그’, ‘쪽소노미’, ‘태그구름’ 등의 서비스를 자체 개발로 구현하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면담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K전문대학도서관과 D전문대학도서관은 설문조사 시 답변내용이 비교적 충실하고 외부업체에서 Library 2.0 서비스를 개발하였지만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는 사서가 직접 이 과정에 참여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이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높기 때문에 면담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면담 방법은 2010년 10월 13일에 질문지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송부하여 10월 18일에 답변을 받았으며, 좀 더 충실한 답변을 얻고자 10월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전화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시 사용된 질문지는 다음의 <표 22>와 같다.

〈표 22〉 사서 면담 질문 내용

번호	내 용
1	Library 2.0 서비스의 도입 동기는?
2	Library 2.0 서비스 실시 후의 이용자들의 이용률과 만족도는?
3	최근 트위터, 미투데이 등 SN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도서관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Library 2.0 서비스 제공방식은 자체개발과 외부업체(도서관시스템업체) 개발 등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무엇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	현재 실시하고 있는 Library 2.0 서비스의 보완할 점은 무엇입니까?
6	Library 2.0 서비스의 실시로 인해 이용자들의 정보공유, 참여, 개방 등이 도서관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	전문대학도서관을 위한 Library 2.0 서비스 활성화 방안이나 홍보계획은 무엇입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Library 2.0 서비스 도입 동기

Library 2.0 서비스 도입 동기에 대해 Y전문대학도서관 사서는 ‘단행본 위주의 장서 구성 탈피를 위해 KERIS의 Open API를 활용하여 학위논문 통합검색을 실시하면서 시작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K전문대학은 ‘타 대학 도서관의 Library 2.0 사례에서 Open API를 통해 풍부한 검색 결과가 구현되는 것을 확인하고 도입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D전문대학은 ‘도서관자동화시스템 업체에서 개발한 것을 보고 다른 기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로 생각해서 도입하였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Library 2.0 서비스 실시는 학술정보자원 확충과 다양한 검색 결과 제공 등의 이유로 Open API를 활용하여 KERIS 등의 국내 석·박사학위논문과 학술지를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시작하였으며, 그 후 네이버, 구글, 플리커 등의 포털 사이트 정보까지 이용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학술정보자원의 확보 후에 이를 바탕으로 ‘블로그’, ‘쪽소노미’, ‘태그구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 Library 2.0 서비스 실시 후 이용자 이용률과 만족도

Library 2.0 서비스 실시 후 이용자 이용률과 만족도에 대해 Y전문대학도서관 사서는 ‘Open API에 대한 이용률과 만족도는 높지만 블로그와 폭소노미에 대한 이용률은 낮고 만족도는 높다. 이는 2010년 9월에 이용자 대상으로 Library 2.0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받은 결과이다.’라고 하였다. K대학은 ‘이용자 교육을 통해 Library 2.0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홍보하였는데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본 결과 Open API에 대한 이용률과 만족도는 높지만 RSS에 대한 이용률은 낮고 만족도는 높다’고 하였다. D대학은 ‘Open API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들의 이용률과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들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면, Open API에 대한 이용률과 만족도는 높지만 그 외에 RSS, 블로그, 폭소노미 등에 대해서는 이용률은 낮고 만족도는 높다고 하였다. RSS는 도서관의 정보와 소식을 전해주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아직까지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정보 제공이 미흡한 편이다. 블로그는 아직까지 사서 중심의 일방적인 글쓰기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어 이용자들 간의 정보 공유가 부족하다. 폭소노미는 이용자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사서가 직접 태그를 입력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종합해보면, Library 2.0 서비스의 이용률과 만족도의 향상을 위해 사서는 이용자들의 참여와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RSS, 블로그, 폭소노미 등의 서비스는 이용률은 낮지만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 번 이상 이 서비스를 이용해 본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므로, 이용자들에게 이 서비스를 알리고 이용하게 하는 홍보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3) SNS의 도서관 도입

SNS의 도서관 도입에 대해 Y전문대학도서관 사서는 ‘기존 SNS를 단순히 도서관에 도입하는 것보다 도서관에 맞게 변형된 SNS를 제공하는 것

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K전문대학은 'SNS를 다수의 이용자들이 활용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도서관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다. D전문대학은 'SNS는 개인적인 1인 커뮤니티이므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며,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들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면,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서비스는 도서관에도 도입하여 활용할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부분에 대상 사서들이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도입 시기나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LG상남도서관 같은 경우는 LG-ELIT(Electronic Library Information Tour)를 만들어 각종 과학기술 자료를 구비하고 이용과 관련한 이용후기 를 작성하면서 관심회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도서관 설정에 맞게 변형하여 SNS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자체개발과 외부업체 개발

Library 2.0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해 Y전문대학도서관 사서는 '여건이 허락한다면 자체개발이 바람직하며 그래야 서비스 주도권을 확보하여 자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K와 D전문대학 은 '전문대학도서관은 인적자원이 부족하여 전산사서의 확보가 쉽지 않으므로 설계는 자체적으로, 개발은 외부업체에서 담당하는 것이 좋다'라고 답변하였다.

Y전문대학도서관은 전산개발 인력이 있어 자체개발이 가능하지만 K와 D전문대학도서관은 대부분의 전문대학도서관처럼 자체 전산개발 인력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답변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Y전문대학도서관처럼 전산개발 인력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자체개발을 하는 것이 좋지만 이러한 인적자원이 없을 경우에는 서비스 설계는 사서가 담당하고 실제 개발은 외부업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형태라 할 수 있다.

5) Library 2.0 서비스의 보완

Library 2.0 서비스 중 보완사항에 대해 Y전문대도서관 사서는 ‘Open API는 단순히 통합검색 결과만 구현하지 말고 이용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서비스가 필요하고 블로그와 폭소노미는 사서에 의한 소통보다 이용자 상호간의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하였다. K전문대학은 ‘Library 2.0 서비스 실시 후 검색 속도가 저하되어 이의 해결을 위한 서버 증설 및 네트워크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D전문대학은 ‘Open API는 확대 실시하고 나머지 Library 2.0 서비스는 너무 많은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들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면, 보완점은 이용자 중심의 Library 2.0 서비스 개발이라고 할 수 있으며, K대학은 Open API 서비스 실시 후 검색 속도가 느려져 이에 대한 장비 증설을 보완할 점으로 들었다.

이용자 중심 Library 2.0 서비스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Y전문대학도서관에서는 Open API를 활용하여 여행과 지리 관련 도서 MARC의 522태그 지역명과 KDC 980 지리를 구글 위성지도와 플리커의 이미지 정보와 연동시켜 소장자료와 함께 구글 위성지도와 이미지가 통합 검색 되도록 구현하고 있다. 여행과 지리 관련 도서를 찾는 학생들에게 지도와 해당 지역의 이미지가 필요한 부분을 차단하여 실제 시스템에서 바로 구현한 것이다. 이는 다른 대학도서관에서 실시하는 ‘Open API’와 차별되는 것으로 이용자의 요구와 필요를 즉각적으로 반영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블로그’는 사서 중심의 글쓰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벤트 등의 유인책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글쓰기와 상호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폭소노미’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많은 이용자가 직접 태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용자 참여와 정보공유가 없으면 Library 2.0 서비스의 활성화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6) Library 2.0 서비스의 실시와 정보 유통의 중심 역할

Library 2.0 서비스의 실시로 도서관이 정보 유통의 중심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 Y전문대학도서관 사서는 ‘현재는 이용자 정보공유와 유통이 활발하지 않아 도서관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며 도서관에 특화된 서비스가 개발된다면 점차 정보 유통의 중심축이 도서관으로 옮겨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K대학은 ‘Library 2.0 서비스의 확대와 컨텐츠의 지속적 개발이 연계된다면 가능하다’라고 하였다. D대학은 ‘Library 2.0 서비스가 확대되고 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협력이 강화된다면 가능하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들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면, 현 단계의 Library 2.0 서비스로는 정보 유통의 중심 역할을 하기는 힘들며, 이용자의 요구와 필요에 부합하는 응용 서비스들이 많이 나와야 도서관이 정보 유통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이 정보 유통의 중심 역할을 하기 위해 사서는 Library 2.0 서비스 확대 실시와 응용서비스 개발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7) Library 2.0 서비스 활성화 방안

Library 2.0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 Y전문대학도서관 사서는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도서관에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한 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 강화가 필요하며 우리대학은 이 서비스를 주제로 학생 대상 특강을 실시하여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라고 하였다. K대학은 ‘먼저 사서를 대상으로 한 교육 실시가 필요하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D대학은 ‘이용자 대상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며, 도서관 행사나 이벤트를 통해 이용자가 이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들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면, Library 2.0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자의 요구와 필요에 따른 응용 서비스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난 후 이 서비스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Library 2.0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자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특화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설계와 구축 과정에 사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서가 직접 교육과 홍보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위의 답변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표 23>과 같다.

<표 23> 사서 면담 답변 내용

질문 내용	내 용		
	Y대학도서관	K대학도서관	D대학도서관
도입 동기	학술정보자원의 확충	풍부한 검색 결과	다른 기관의 DB활용
이용률과 만족도	이용률 저조, 만족도 향상	이용률 향상, 만족도 향상	이용률 향상, 만족도 향상
SNS 도서관 도입	도서관에 맞게 변형된 SNS 제공 필요	SNS 도서관 도입 필요	SNS는 시기상조
개발 형태	자체개발이 바람직	인적자원과 예산 등의 여건 고려할 때 외부개발	인적자원과 예산 등의 여건 고려할 때 외부개발
보완 사항	이용자 중심 서비스 추가 필요	서버 증설 및 네트워크 환경 개선	Open API, RSS 외 다양한 서비스 개발 필요
정보 유통의 중심 역할	현재는 이용자 정보공유가 활발하지 않고 지속적 노력 필요	Library 2.0 서비스가 확대되고 컨텐츠의 지속적 개발이 이루어지면 가능	학술정보 유통의 중심은 가능
도입 활성화 방안	이용자가 원하는 Library 2.0 서비스를 자체개발한 후 교육과 홍보 강화	사서 대상 교육과 이용자 대상 홍보 필요	교육과 홍보 필요

전체적으로 사서 면담을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입 동기는 학술정보자원의 확충과 다양한 검색결과 제공을 위해 Open API를 먼저 시작했고 이를 토대로 RSS, 블로그, 폭소노미, 태그구름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둘째, 이용자 이용률과 만족도는 Open API의 이용률은 높지만 그 외 서비스의 이용률은 낮으며,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높아 이 서비스에 대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용자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이용자 참여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SNS의 도서관 도입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긍정적이나 도입 시기나 방법에 있어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 LG상남도서관과 같이 도서관

의 실정에 맞게 변형한 SNS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넷째, 제공 방식은 전산개발 인력이 있는 경우에 당연히 자체개발을 해야겠지만, 이러한 인적자원이 없을 경우에는 서비스 설계는 사서가 담당하고 실제개발은 외부업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섯째, 보완사항은 이용자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Library 2.0 서비스의 개발이다. 예를 들면 Open API는 구글의 위성지도, 플리커의 이미지 등을 MARC와 연계한 응용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고, 블로그는 이용자 중심의 글쓰기를 유도하고, 폭소노미는 이용자가 직접 태그를 부여할 수 있는 이벤트 등의 유인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정보 유통의 중심 역할은 현재 Library 2.0 서비스로는 힘들며, 이용자의 참여와 응용 서비스 개발 등의 노력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일곱째, 활성화 방안은 이용자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응용 서비스를 개발하고, 설계와 구축 과정에 사서의 주도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며,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서가 직접 교육과 홍보에 앞장서야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3.3 종합적 고찰

본 연구는 전문대학도서관 사서의 Library 2.0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적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전국 전문대학 중 학생 수가 4,000명 이상인 50개 대학도서관에 재직 중인 사서 각 1명씩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3명의 사서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술통계적 분석

설문을 통해 나타난 사서들의 조사 내용을 그대로 제시하기 위해 빈도 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서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Library 2.0 서비스 기능은

‘RSS(90.2%)’, ‘블로그(70.7%)’, ‘Open API(68.3%)’ ‘툴바(61.0%)’ 등으로 나타나 대학도서관에 많이 도입하고 있거나 포털 사이트 등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기능 위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사서들이 가장 알지 못하는 기능은 ‘태그구름(14.6%)’, ‘폭소노미(7.3%)’로 새로운 정보서비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Library 2.0 서비스 이용 경험은 ‘경험 있음’이 26명(63.4%), ‘경험 없음’이 15명(36.6%)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이 경험한 세부 기능은 ‘RSS(88.5%)’, ‘블로그(76.9%)’, ‘Open API(73.1%)’, ‘툴바(57.7%)’ 등으로 인지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SNS’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답한 사서는 18명(43.9%)인데 반해 경험해 보았다고 답한 사서는 4명(15.4%)으로 나타나 사서들의 새로운 매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셋째, 사서들의 Library 2.0 서비스 교육 경험은 ‘경험 있음’이 10명(24.4%), ‘경험 없음’이 31명(75.6%)으로 나타났다. 이용 경험은 26명(63.4%)인데 반해 교육 경험은 10명(24.4%)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한 교육이 시급히 필요함을 의미한다.

넷째, Library 2.0 서비스 도입은 ‘도입’이 14명(34.1%), ‘미도입’이 27명(65.9%)으로 나타나 이 서비스의 도입이 활발하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다. 개발형태는 ‘자체개발’ 2명(14.3%), ‘외부업체개발’이 12명(85.7%)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에 많이 도입한 기능은 ‘RSS(92.9%)’, ‘Open API(71.4%)’, ‘블로그(28.6%)’ 등이며 이러한 결과는 인지와 이용 경험이 일치하고 있다. 또한 ‘트랙백’, ‘툴바’, ‘SNS’의 적용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도서관 적용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Library 2.0 서비스 주요 도입 동기는 ‘다른 기관 데이터베이스 활용(35.7%)’, ‘도서관 정보서비스 개선(21.4%)’, ‘도서관에 대한 이용자의 참여와 관심 유도(14.3%)’ 등으로 나타났다. Library 2.0 서비스 도입기능과 추가 희망 기능을 종합해 본 결과 사서들이 선호하는 Library 2.0 서비스는 ‘Open API’, ‘RSS’, ‘위젯’, ‘블로그’, ‘태그구름’, ‘SNS’, ‘소셜북마크’, ‘폭소노미’, ‘트랙백’, ‘툴바’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SNS’는 도입 도서관이

없음에도 비교적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어 이 서비스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Library 2.0 서비스 주요 미도입 이유는 ‘예산 부족(51.9%)’과 ‘인력 부족(18.5%)’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은 예산과 인적자원의 부족이 향상된 정보서비스 도입에 가장 큰 장애요인임을 알 수 있다. Library 2.0 서비스 미도입 사서들이 선호하는 주요 기능은 ‘Open API(88.5%)’, ‘RSS(88.5%)’, ‘툴바(80.8%)’, ‘태그구름(76.9%)’, ‘SNS(76.9%)’ 등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Library 2.0 서비스 세부 기능에 대한 주요 활용도는 ‘Open API’가 평균 3.80, ‘RSS’가 평균 3.41, ‘블로그’가 평균 3.32, ‘SNS’가 평균 3.17로 나타나 ‘Open API’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SNS’에 대한 사서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알 수 있다. 또한 Library 2.0 서비스 도입 주요 우선순위는 ‘Open API’가 87점, ‘RSS’가 55점, ‘블로그’가 33점으로 나타나 활용도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덟째, Library 2.0 서비스 주요 활성화 방안은 ‘이용자 홍보(38.5%)’, ‘사서에게 교육과 지원 필요(30.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자교육 실시 등과 같은 능동적 홍보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2) 표본 특성에 따른 변인 간 차이 비교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변인들 간의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대학 소재지에 따른 Library 2.0 서비스 이용 경험은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이용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ibrary 2.0 서비스 도서관 도입 역시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이용 경험이 많고, 이용 경험이 많은 집단이 Library 2.0 서비스 도입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KERIS와 한국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등의 대학도서관 교육관련 기관에서는 Library 2.0 서비스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비수도권 전문대학도서관이 정보교류의 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3) 사서면담

전문대학도서관 중 Library 2.0 서비스를 도입한 사서 3명을 선정하여 심층적인 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 내용 중 특징적인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Library 2.0 서비스 보완사항은 이용자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Library 2.0 서비스의 응용 개발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Open API는 단순히 다른 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검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MARC과 연계하여 도서관 정보 활용성을 높여야 할 것이며, 블로그는 이용자 중심의 글쓰기를 유도하고, 폭소노미는 이용자가 직접 태그를 부여할 수 있는 이벤트 등의 유인책으로 이용자와의 소통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둘째, Library 2.0 서비스 활성화 방안은 이용자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응용 서비스를 개발하고, 설계와 구축과정에 사서의 주도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바탕 위에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서가 직접 이 서비스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제 4 장 전문대학도서관 LIBRARY 2.0 적용 방안

본 연구는 Library 2.0 기술을 활용한 전문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분석하여 전문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Library 2.0 적용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대학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전문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Library 2.0 서비스 적용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Open API를 활용한 학술정보자원 확충

Library 2.0 서비스의 세부 기능 중 인지도와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것은 Open API이며 여러 항목들의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도서관의 도입이 시급히 요구되는 기능인 것으로 나타났다. Open API는 경험집단의 활용도 평가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현실적으로 전문대학도서관의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소장자료의 부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용한 기능이다.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풍부한 검색 결과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이용자들의 정보 요구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Open API 기능을 활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문대학도서관은 도서관자동화시스템 업체에서 이를 제공받는 형태로 되어 있어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구현이 거의 없고 그 구성이나 인터페이스가 동일한 상황이다. 인적자원이 부족한 전문대학도서관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외부업체 제공형태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용자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이 서비스의 설계단계에서 사서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각 대학도서관의 특성에 맞게 서비스할 정보 자원을 선택하고 검색화면을 구성한다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으며,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학위논문을 생산하지 않는 전문대학도서관은 KERIS에서 제공하는 국내 석·박사학위논문 Open API 서비스를 반드시 도입해 할 것이다. 이

서비스는 국내 석·박사학위논문 140만 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전문대학도서관 학술정보 제공의 질과 양을 한 단계 높여줄 수 있다. 이 외에 다양한 기관과 포털 사이트에서도 Open API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다면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확보하여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서 대상 교육 기회 확대

설문분석 결과, Library 2.0 서비스의 교육 경험은 24.4%로 나타나 이에 대한 확대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는 Library 2.0 서비스의 주체로서 교육 경험이 도서관 서비스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

Web 2.0으로 대변되는 참여, 개방, 공유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이용자들의 정보 요구와 공유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이에 도서관 역시 Library 2.0 서비스를 통해 대응해 나가고 있다. 사서들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과 그 활용에 대한 이해와 적응이 필요할 것이다. 이용자들은 포털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보와 서비스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사서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되면 이용자와의 거리는 점차 멀어질 것이다. 따라서 사서들은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정보서비스 환경에 대해 늘 예의주시하며,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Web 2.0 또는 Library 2.0에 대한 개발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교육과 지원은 대학도서관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KERIS와 전문대학도서관의 네트워크인 한국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등의 기관에서 사서 직무교육과 연수 등을 통해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에 있는 사서들의 Library 2.0 서비스 교육 경험과 이용 경험이 낮게 나타나 수도권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비수도권을 배려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3) 응용서비스 개발

대학도서관은 정보 유통의 중심적인 기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이와 관련한 상당 부분의 역할을 포털 사이트 등에 넘겨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다시 대학도서관 중심의 서비스로 찾아오려면 포털 사이트와 차별화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Library 2.0 서비스는 포털 사이트 등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한 Web 2.0 서비스 등을 활용한 것으로 도서관만의 새로운 서비스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응용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전문대학도서관 중 이 서비스의 자체개발을 시행한 영진전문대학도서관의 경우에는 지리와 여행 관련 정보를 나타내는 MARC의 522태그와 KDC 980에서 뽑아낼 수 있는 관련 키워드와 구글의 위성지도와 플리커를 연동시켜 Open API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공개되어 있는 Open API를 도서관 정보에 맞게 변형하여 이용자들의 요구와 기대에 맞게 응용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발은 기존 도서관서비스와 연계한 응용서비스를 제공한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비록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웹 사이트에 연결시키는 것은 외부업체에서 담당하게 할지라도 Library 2.0 서비스의 개발 계획 및 설계, 더 나아가서 구축 과정에 사서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Library 2.0 서비스가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며, 도서관 정보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4) 이용자 교육과 홍보 강화

설문 분석에서 사서들은 Libray 2.0 서비스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었다. Library 2.0 서비스의 핵심 가치는 이용자 중심의 정보 유통과 서비스이다. 도서관 정보서비스가 이용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용자에게 홍보

하는 방법의 하나가 바로 이용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Library 2.0 서비스의 세부 기능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할 때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는 이용자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홍보인 것이다.

전문대학도서관은 인적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이용자 교육을 도서관 홈페이지의 온라인 교육과 홍보 책자 등의 발행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과 홍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 서비스의 교육과 홍보는 사서의 직접 특강이나 수업시간 중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Library 2.0 서비스에 대한 체험 이벤트 등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이용자가 자연스럽게 흥미를 가지고 이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서 중심의 교육과 홍보는 Library 2.0 서비스의 개발과 연결되어 있다. 이 서비스의 설계와 구축 과정에 사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할 수 없으며, 이는 직접 교육을 힘들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사서는 이 서비스의 설계와 구축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과 홍보를 직접 시행하는 것이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5) SNS에 대한 연구와 서비스 제공

설문 결과 전문대학도서관 사서는 SNS에 대해 43.9%가 잘 알고 있으나 실제 이를 경험한 사서는 15.4%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SNS는 대학도서관 이용자들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이다. 그러므로 사서는 새롭게 등장하여 이용자에게 각광 받고 있는 SNS에 대해 실제로 경험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SNS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커뮤니티형 웹사이트로 정보 공유와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용자 상호간에 관심 분야를 공유하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네트워크가 도서관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도서관을 통한 정보 유통이 이용자에 의해 확대되고 재생산되어 서로간의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SNS의 도서관 적용은 크게 보면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같은 가입형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과 도서관에 특화된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것이 있다. 만약 웹사이트를 개발할 여력이 거의 없다면 기존 가입형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SNS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이에 대한 활성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 관심 있는 전문대학도서관 사서들이 모여 전문대학도서관 이용자에게 적합한 커뮤니티형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SNS에 대한 사서들의 관심과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사서들이 이 서비스를 경험하지 않고 이용자들의 정보 유통과 요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도서관에서 활용할 기존 가입형 SNS 웹사이트를 선정할 때도 국내외 사이트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운영상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도서관에서는 SNS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양질의 컨텐츠와 정보서비스의 개발 및 지속적인 업데이트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6) 대학도서관간 협력 및 기술 공유

Library 2.0 서비스는 Web 2.0을 기반으로 하며, 이 서비스의 핵심 가치는 정보와 서비스의 공유, 개방, 참여이다. 이러한 사실은 Library 2.0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학도서관 간의 긴밀한 협력 및 기술 공유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전문대학도서관은 사서들의 능력과 의지와는 별개로 소장자료, 예산, 인적자원 등의 환경적인 요건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상호간 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문대학도서관은 대부분 한국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다.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이 서비스 개발기술과 정보서비스 경험 등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협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 서비스에 대한 상호협력과 기술공유는 전문대학도서관뿐 아니

라 4년제 대학도서관을 포함한 전체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논의는 대학도서관 정보 유통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KERIS의 사서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뒷받침될 때 Library 2.0 서비스의 핵심 가치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며 대학도서관과 이용자 상호간의 정보 공유와 유통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제 5 장 결 론

Library 2.0 서비스는 정보 공유와 유통을 이용자 중심적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도서관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활용하게 하는 모든 과정을 사서 중심적으로 진행하였다. 웹을 통한 네트워크 환경의 비약적인 발전은 이러한 관리자 중심의 정보 제공과 유통의 흐름을 수요자 중심 즉, 이용자 중심으로 바꾸어 놓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정보들이 이용자들에 의해 생산·공유되고 있다. 대학도서관은 이러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Web 2.0의 개념과 기술을 응용하여 Library 2.0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대학도서관은 4년제 대학도서관에 비해 예산, 인적자원 등이 부족하여 활발한 서비스 적용과 운영이 힘든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Library 2.0 기술을 활용한 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전문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분석하여 전문대학도서관의 정보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Library 2.0 적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통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Library 2.0 서비스의 연구흐름과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설문지와 심층면접을 통한 실증적 접근을 통해 전문대학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Library 2.0 서비스에 대해 인식과 적용 및 활성화방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서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으면서 이용 경험이 있는 Library 2.0 세부 기능은 ‘RSS’, ‘Open API’, ‘블로그’이며, ‘SNS’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과 기대를 나타내었다. 이 서비스의 도입은 34.1%로 활발하지 못하며, 주요 도입동기는 ‘다른 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활용’이며, 주요 미도입동기는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나타났다. 주요 활용도는 ‘Open API’, ‘RSS’, ‘블로그’, ‘SNS’순이며, 주요 활성화 방안은 ‘이용자 홍보’, ‘사서에게 교육과 지원 필요’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 소재지에 따른 분석에서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이용

경험이 많고, 도서관 도입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이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다는 것으로 대학도서관 교육 관련 기관에서는 비수도권에 위치한 대학도서관 사서들을 위한 세미나와 교육 실시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셋째, 심층면담 분석결과는 Library 2.0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응용서비스를 개발하고, 설계와 구축 과정에서 사서의 주도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바탕 위에 사서가 직접 이 서비스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문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Library 2.0 적용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Library 2.0 세부 기능 중 활용도가 가장 높은 Open API 서비스의 우선 적용이다. 다양한 정보서비스 실시의 전제조건은 풍부한 소장자료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대학도서관의 부족한 학술정보자원을 확충할 수 있는 Open API 서비스 실시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Library 2.0 서비스의 사서 대상 교육 기회의 확대이다. 설문 분석 결과 사서들의 Library 2.0 교육 경험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KERIS와 한국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등의 관련 교육기관에서는 이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대학 도서관의 상황을 배려한 교육과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

셋째, Library 2.0 서비스의 응용개발이다. 이용자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도서관 정보서비스와 연계한 도서관만이 제공할 수 있는 응용서비스의 개발이 있어야 할 것이다. Open API와 MARC 정보의 연계와 같은 응용서비스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Library 2.0 서비스 활성화 방안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이용자 교육과 홍보 강화이다. Library 2.0 서비스는 이용자 간의 정보공유와 참여가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이용자들에게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알려주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이용 교육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용자 교육과 홍보는 사서가 직접 능동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 서비스의 설계와 구축 과정에서부터 사서의 주도적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최근 들어 정보 교류와 인맥 관리의 중심축이 되고 있는 SNS에 대한 연구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연구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사서들은 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높으나 실제 제대로 경험과 활용을 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SNS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선행되어야하고, 도서관에 적용한 후에는 이용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양질의 컨텐츠와 정보서비스의 개발 및 지속적인 업데이트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Library 2.0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학도서관 간의 긴밀한 협력 및 기술 공유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Library 2.0 서비스의 기반인 Web 2.0 서비스 본연의 핵심 가치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상호협력과 기술공유는 전문대학도서관 뿐 아니라 4년제 대학도서관을 포함한 전체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문대학도서관에 있어 Library 2.0 서비스는 정보 유통의 중심축을 도서관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에게 적시에 적합 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오랜 기간 도서관의 주도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용자 중심의 정보 생산과 유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이 주도권의 일부를 포털 사이트 등에 내어주었지만 Library 2.0 서비스로 인해 도서관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이다. 특히 전문대학도서관은 예산과 인적자원 등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정보자원을 확충하고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Library 2.0 서비스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는 포털 사이트에서 시행하고 있는 Web 2.0 서비스를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 서비스의 설계와 구축 과정에 관여해야 하며, 기존 도서관의 정보서비스와 결합을 통한 도서관만의 특화된 응용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용자의 요구와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대학도서관 이용자들의 Library 2.0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에 따른 후속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정보요구를 만족시켜 정보 유통과 서비스의 중심이 온전히 도서관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장선미. 2009. 『블로그를 통한 정보의 공유와 확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 구중억, 이응봉. 2009. Open API 기반 메타 검색시스템의 사용성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26(1): 185-214.
- 김기숙. 2008. 『대학도서관 Library 2.0의 이용자참여형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동재. 2008. 『소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대학도서관 온라인커뮤니티 구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류진희. 2008. 『대학 Library 2.0 구축을 위한 이용자 요구분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박미영, 승현우. 2010. Public Library 2.0 기반 지역 커뮤니티지식정보시스템 개념적 설계.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1(1): 193-209.
- 박미성. 2008. Web 2.0 기술 적용 사이트 분석을 통한 도서관 정보시스템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1): 139-168.
- 박태연. 2010. 『대학도서관 태그 서비스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박희연. 2008. 『도서관 블로그 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 연구 : 국내 P대학도서관 블로그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이성숙, 정서영. 2009. 국내 도서관 폭소노미 태그의 일반적 패턴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1): 137-150.
- 이응봉. 2007. 학술도서관 디지털정보서비스의 향후 전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2): 182-202.
- 이응봉. 2010. 웹 2.0 기반 교수 강의 · 연구지원 학술정보서비스 모델 개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1): 157-180.

- 이정미. 2007. 폭소노미의 개념적 접근과 웹정보 서비스에의 적용.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8(2): 141-159.
- 이지연, 민지연, 주수형. 2007. 『라이브러리 2.0과 도서관 서비스 발전 방향』.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이지연, 민지연. 2008. 라이브러리 2.0에 대한 이용자 인식 및 요구사항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1): 213-231.
- 이현실. 2009. OPAC 접근 향상을 위한 도서관 툴바의 제공 및 사서 평가 연구: W대학 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3): 157-180.
- 정종기. 2010. 웹 2.0기반의 '팟캐스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미국의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1): 99-120.
- 정진한. 2010. 전문대학도서관을 위한 정보서비스 개발과 운영. 『대학도서관』, 1(1): 189-238.
- 조재인. 2007. 롱테일 현상과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3): 73-90.
- 진성화. 2008. 『대학도서관의 RSS를 이용한 정보서비스 활성화 방안』.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2005. 『2005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자료』.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9. 『2009 대학도서관 통계분석자료집』.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Abram, Stephen. 2006. "Web 2.0, Library2.0 and Librarian 2.0: Preparing for the 2.0 World". *SirsiDynix OneSource*, 2(1). [cited 2010.6.1] <http://www.imakenews.com/sirsi/e_article000505688.cfm?x=b11,0,w>.
- Aharony, Noa. 2009. "Web 2.0 Use by Librarian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31(1): 29–37.

Casey, Michael. 2006. “The Meaning of : Library 2.0”. [cited 2010.6.7]

<<http://www.librarycrunch.com/images/iwr.gif>>.

Holmberg, Kim, Isto Huvila, Maria Kronqvist-Berg and Gunilla Widén-Wulff. 2009. “What is Library 2.0?”. *Journal of Documentation*, 65(4): 668–681.

Kim, Yong-Mi and June Abbas. 2010. “Adoption of Library 2.0 Functionalities by Academic Libraries and Users: A Knowledge Management Perspective”.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36(3): 211–218.

O’reilly, Tim. 2005. “What is Web 2.0”. [cited 2010.6.15]

<<http://www.oreillynet.com/pub/a/oreilly/tim/new/2005/09/30/what-is-web-20.html>>.

Tripathi, Manorama and Sunil Kumar. 2010. “Use of Web 2.0 Tools in Academic Libraries: A Reconnaissance of The International Landscape”. *The International Information & Library Review*, 42(3): 195–207.

Xu, Chen, Fenfei Ouyang and Heting Chu. 2009. “The Academic Library Meets Web 2.0: Applications and Implications”.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35(4): 324–331.

Zheng, Qiaoying and Shaoping Wang. 2009. “Programming Library 2.0 that users need”. *Electronic Library*, 27(2): 292–297.

고려대학교 도서관 <<http://library.korea.ac.kr>> [cited 2010.6.12].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블로그 <<http://dgulibrary.tistory.com>> [cited 2010.6.20].

명지대학교 도서관 <<http://lib.mju.ac.kr/index.ax>> [cited 2010.7.1].

영진전문대학 도서관 <<http://library.yjc.ac.kr>> [cited 2010.6.16].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http://library.snu.ac.kr>> [cited 2010.6.15].

성균관대학교 학술정보관 <<http://lib.skku.edu/index.ax>> [cited 2010.6.2].

중앙대학교 도서관 블로그 <<http://caulib.tistory.com/>> [cited 2010.6.15].

포항공과대학교 청암학술정보관 <<http://library.postech.ac.kr/htdocs/index.php>> [cited 2010.6.12].

포항공과대학교 청암학술정보관 블로그 <<http://postechlibrary.tistory.com/>> [cited 2010.6.21].

Pennsylvania대학 도서관 <<http://tags.library.upenn.edu/>> [cited 2010.6.21].

Harvard대학 도서관 <<http://lib.harvard.edu/tools/libx.html>> [cited 2010.6.25].

MIT대학 도서관 <<http://www.delicious.com/virtualref>> [cited 2010.6.25].

Georgia대학 도서관 <<http://www.lib.ncsu.edu/dli/projects/catalogwsapps/>> [cited 2010.6.15].



【부 록】

설문지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현정보학과 석사과정 학생으로 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Library 2.0 적용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지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준비된 것으로, 귀하의 설문지는 전문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의 향상과 운영정책에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아울러 설문지 작성 전 별도로 배포한 Library 2.0 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설문지의 내용은 학문적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응답해 주시는 자료는 컴퓨터에 의해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별도의 개인적인 특징을 평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솔직하고 성의 있게 답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0년 9월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현정보학과
석사과정 : 장은희(ehjang@kyungmin.ac.kr)
지도교수 : 이우범(moon0610@hansung.ac.kr)

I. 일반적인 사항

(✓표시를 해 주시거나 () 속에 직접 기입해주세요.)

성 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도 서 관 근무연수	<input type="checkbox"/> 5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5년 이상~10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10년 이상~15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15년 이상
담당업무	<input type="checkbox"/> 수서 <input type="checkbox"/> 목록(정리) <input type="checkbox"/> 대출반납 <input type="checkbox"/> 정보서비스(정보봉사, 이용자 교육) <input type="checkbox"/> 연속간행물 <input type="checkbox"/> 전산 <input type="checkbox"/> 기타 ()
대 학 설립형태	<input type="checkbox"/> 국공립 <input type="checkbox"/> 사립
학 교 소재지	<input type="checkbox"/> 수도권(서울/경기/인천) <input type="checkbox"/> 광주 <input type="checkbox"/> 대구 <input type="checkbox"/> 대전 <input type="checkbox"/> 부산 <input type="checkbox"/> 울산 <input type="checkbox"/> 경상도 <input type="checkbox"/> 전라도 <input type="checkbox"/> 충청도 <input type="checkbox"/> 제주도
학 생 수	<input type="checkbox"/> 4,000명 이상~5,000명 미만 <input type="checkbox"/> 5,000명 이상~6,000명 미만 <input type="checkbox"/> 6,000명 이상~7,000명 미만 <input type="checkbox"/> 7,000명 이상~8,000명 미만 <input type="checkbox"/> 8,000명 이상

II. Library 2.0 서비스 인식

1. Library 2.0 서비스 중 알고 있는 모든 기능을 체크해 주세요.

(※ 별도로 배포한 Library 2.0 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읽기 전 상태를 의미합니다.)

- ① Open API
- ② RSS
- ③ 블로그
- ④ 태그구름
- ⑤ 트랙백
- ⑥ 폭소노미
- ⑦ 툴바
- ⑧ 소셜 북마크
- ⑨ 위젯
- ⑩ SNS

2. Library 2.0 서비스를 도서관 혹은 기타 웹사이트에서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아니오 라고 대답하신 분은 4번 문항으로 가주세요)

3. Library 2.0 서비스 중 도서관 혹은 기타 웹사이트에서 이용 경험이 있는 모든 기능을 체크해 주세요.

- ① Open API
- ② RSS
- ③ 블로그
- ④ 태그구름
- ⑤ 트랙백
- ⑥ 폭소노미
- ⑦ 툴바
- ⑧ 소셜 북마크
- ⑨ 위젯
- ⑩ SNS

4. 귀하께서는 Library 2.0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III. Library 2.0 서비스 도서관 적용

5. 귀하께서 소속된 도서관에 Library 2.0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아니오 라고 대답하신 분은 10번 문항으로 가주세요)

6. 도서관에 도입한 Library 2.0 서비스의 개발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자체개발
- ② 외부업체 개발(도서관시스템업체 등)

7. Library 2.0 서비스 중 귀하께서 소속된 도서관에서 도입하고 있는 모든 기능을 체크해 주세요.

- ① Open API
- ② RSS
- ③ 블로그
- ④ 태그구름
- ⑤ 트랙백
- ⑥ 폭소노미
- ⑦ 툴바
- ⑧ 소셜 북마크
- ⑨ 위젯
- ⑩ SNS

8. 현재 귀 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Library 2.0 서비스의 도입 동기는 무엇입니까?

- ① 도서관에 대한 이용자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 ② 다른 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기 위해
- ③ 도서관 정보검색서비스 개선을 위해
- ④ 도서관 정보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해
- ⑤ 도서관 홍보와 소식(이용안내 등)을 전하기 위해
- ⑥ 이용자 간 소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 ⑦ 도서관 개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 ⑧ 기타

(

)

9. Library 2.0 서비스 중 귀하께서 소속된 도서관에 추가로 도입하고 싶은 모든 기능을 체크해 주세요.

- ① Open API
 - ② RSS
 - ③ 블로그
 - ④ 태그구름
 - ⑤ 트랙백
 - ⑥ 폭소노미
 - ⑦ 룰바
 - ⑧ 소셜 북마크
 - ⑨ 위젯
 - ⑩ SNS
- (12번 문항으로 가주세요)

10. Library 2.0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 ② 예산이 부족해서
- ③ 인력이 부족해서
- ④ 기존 도서관시스템으로도 충분한 정보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 ⑤ 이용자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야기할 것 같아서
- ⑥ 기타

(

)

11. 다음은 도서관 시스템에 Library 2.0 서비스를 적용한 경우의 예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입희망여부를 체크해 주세요.

항목	Library 2.0 서비스	예	아니오
1	Open API 서비스를 활용한 KERIS, NAVER, Google 등의 DB와 연계 검색, 희망도서 신청 시 YES24 등의 Open API 이용		
2	RSS를 활용한 도서관 신착자료, 공지사항 제공		
3	블로그를 활용하여 도서관 정보제공 및 이용자 참여서비스 제공		
4	태그구름을 활용하여 이용자 검색어의 인기도나 중요도를 시각적으로 표현		
5	트랙백을 활용하여 도서관의 유용한 정보를 개인 블로그 등에 링크 할 수 있게 구현		
6	폭소노미를 활용하여 이용자가 직접 주제를 부여하게 구현		
7	룰바를 활용하여 도서관 자료 검색 등의 서비스 구현		
8	소셜 북마크를 활용하여 이용자가 서평 등을 통해 자료를 소개할 수 있는 환경구현		
9	위젯을 활용하여 도서관사이트에서 개인이 원하는 메뉴와 기능을 원하는 위치에 배치하는 서비스 구현		
10	트위터와 미투데이 등을 활용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단문메세지 등을 통해 도서관 정보 제공		

VI. Library 2.0 서비스 도서관 활성화

12. 각각의 Library 2.0 서비스를 도서관에 적용했을 경우 활용도를 평가해 주세요.

항목	Library 2.0 서비스	매우낮다	낮다	보통이다	높다	매우높다
		←.....→				
		①	②	③	④	⑤
1	Open API					
2	RSS					
3	블로그					
4	태그구름					
5	트랙백					
6	폭소노미					
7	툴바					
8	소셜 북마크					
9	위젯					
10	SNS					

13. 다음 Library 2.0 서비스 중 도서관에 꼭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세 가지를 선택하여 도입하고 싶은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 주세요. ()

- ① Open API ② RSS ③ 블로그 ④ 태그구름 ⑤ 트랙백
 - ⑥ 폭소노미 ⑦ 룰바 ⑧ 소셜 블마크 ⑨ 위젯 ⑩ SNS

14.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Library 2.0 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 ① 이용자들에게 관련서비스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
 - ② 사서들에게 Library 2.0 서비스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
 - ③ Library 2.0 서비스 도입을 위한 예산의 확보
 - ④ Library 2.0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전산전문사서의 확보
 - ⑤ 기타

* *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Library 2.0 서비스 개념

Open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서비스 제공업체가 자신들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외부에 접근방법을 공개한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는 국내석박사학위논문, 학술논문 등의 다양한 학술 DB를 공개하고 있으며, 대학도서관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이 DB를 검색서비스에 활용하고 있다.

RSS(Really Simply Syndication or Rich Site Summary)

XML 기반의 정보배급 프로토콜로 뉴스나 공지사항 등과 같이 콘텐츠가 자주 갱신되는 정보를 손쉽게 이용자들에게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용자가 직접 웹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로그인하지 않아도 RSS 리더를 통해 갱신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맞춤형 정보배달 서비스이다. 성균관대학교도서관 등 많은 대학도서관이 서비스를 하고 있다.

블로그

컴퓨터의 웹(web)과 로그(log)의 합성어로 네이즘이 직접 콘텐츠를 생산·관리·유통·공유할 수 있는 통합 게시판의 형태이다. 도서관 블로그는 기존 홈페이지의 일방적 정보전달과 이용자들의 관심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의 새소식과 활용정보를 블로그를 통해 제공하고 댓글이나 방명록을 통해 이용자와 교감할 수 있다. 포항공대도서관을 비롯한 많은 대학도서관이 서비스를 하고 있다.

태그구름

메타데이터에서 얻어진 태그들을 분석하여 중요도나 인기도 등을 고려하여 시각적으로 늘어놓아 웹사이트에 표시하는 것으로 태그들의 글자 크기, 색상, 형태는 중요도나 인기도에 따라 갱신된다. 중앙대학교도서관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도서관 등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

트랙백

블로그에서 사용하는 주요기능 중 하나로 역방향 링크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것이다. 누군가의 블로그를 읽고 그에 대한 의견을 자신의 블로그에 써 넣은 후 트랙백을 주고받으면 원래 글 아래 새로운 글로 가는 링크가 붙게 된다.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쪽소노미

사람들에 의한 분류법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개별 정보에 의미를 부여하여 카테고리로 정보들을 체계화시킨다. 각자 분류된 정보들은 웹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드백에 의해 수정되고 첨가된다. 서울대학교도서관과 영진전문대학도서관 등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

툴바

브라우저 사용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도구모음으로 웹브라우저에 하나의 확장프로그램을 설치함으로써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고도 검색, 사진, 블로그, 무료백신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성균관대학교도서관과 포항공대도서관 등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소셜 북마크

사용자가 북마크를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는 웹기반 시스템으로 쉽게 설명하자면, 웹 서핑 시 북마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이트를 브라우저의 즐겨찾기 대신에 웹에 추가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 영역에 북마크할 수 있도록 하고 몇 명이 북마크를 추가했는지를 통해 해당 사이트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이트로 딜리셔스와 마가리이 있으며, 포항공대도서관 등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위젯

웹사이트의 개인화서비스로 자신이 원하는 메뉴와 기능을 원하는 위치에 배치하는 것으로 명지대학교도서관 등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

SNS(Social Network Services)

1인 미디어, 1인 커뮤니티, 정보공유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맥관리’를 주목적으로 개설된 커뮤니티형 웹사이트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한 종류는 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 트위터, 싸이월드, 미투데이, 메신저 등을 의미한다. LG상남도서관과 성균관대학교도서관 등에서 이를 응용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ABSTRACT

A Study on the Adoption of Library 2.0 for Improving Information Service in College Library

Jang, Eun-hee

Major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A library has been highlighted to users as a central institute of information circulation but in recent, Web 2.0 Service initiatively introduced by portal sites is becoming a big challenge to the library. In this connection, university libraries are performing Library 2.0 service applied in compliance with the libraries.

College libraries are insufficient in the aspects of budget, personal resources and collections of books compared to 4 years' universities so that it is difficult to perform various library information services in college library. However, Library 2.0 service is offering chances to perform various academic information services which can expand the sufficient academic information resources and requirements of users of college libraries based on an open source environment to implement related technical elements for free or at low costs.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questionnaires and in-depth interviews on librarians of college libraries in order to suggest the Library 2.0 adoption plan which can improve the information service of college libraries. The questionnaires and in-depth interview contents

focuses the recognition, application and activation of Library 2.0 service.

As a result of the study conduct, following facts are discovered. First, the main adoption motive of Library 2.0 service is to 'utilize the database of other institutions' and the main non-adoption motive 'insufficiency of budget and manpower'. Utilization are 'Open API', 'RSS', 'Blog' and 'SNS' in order and the main utilization plans are 'public relations to users', 'necessities of education and support to librarians' and so on. Second, according to the analysis by College location, the use experience of the Metropolitan areas is more and library adoption of them is improve compared to 'non-Metropolitan areas'. Third,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of the in-depth interview, development of application services in compliance with user's demands and librarian's initiative participation in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courses are requested and based on them, librarians are required to directly perform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about the service for improving of Library 2.0 service.

This study suggests the adoption plan of Library 2.0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of the information service of college librarie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as bellow. First, it suggests primary application of Open API Service which shows the highest utilization among the detailed functions of the Library 2.0. The prerequisite of the performance of various information services is based on the abundant collections of books so that Open API Service which can expand the insufficient academic information services of college libraries should primarily precede. Second, it is the expansion of educational chances of Library 2.0 service to librarie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questionnaire analysis, the librarians of college libraries are proved to have insufficient educational experiences in Library 2.0. Consequently, the related educational institutions such as KERIS and Korean College

Library Association should systematically perform the education for this service. Third, it is the application development of Library 2.0 service. In order to meet the demands and expectations of users, the application services to be offered by only the existing library information service linked libraries should be developed. Fourth, it is the reinforcement of the user's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These user's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should be performed positively by librarians for themselves and for this, librarian's initiative participation in the service design and implementation courses should be made. Fifth, researches on SNS and its service offer are required.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e librarians of college libraries have high interest and expectation in SNS but in fact, they didn't sufficiently experience and utilize SNS. Therefore, systematic education about SNS should be preceded. Sixth, for improving of Library 2.0 service, not only close cooperation and technical share between college libraries should be supported and the mutual cooperation and technical share should be implemented to all the university libraries including not only college libraries but also 4 years' university libraries.